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현대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 연구

2017年 2月

서울대학교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安 有 眞


현대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 연구

지도교수 朴 正 九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安 有 眞

安有眞의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2016年 12月

委 員 長 오 수 형 

副委員長 이 강 재 

委 員 박 정 주 

【국문초록】

현대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 연구

본고는 현대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에 쓰이는 ‘连…都’구문, ‘连…也’구문, ‘都’자문과 ‘也’자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극단 초점 구문’의 통사적 특징 및 제약과 화용적 특징 및 제약을 기술하고 설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극단 초점 구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극단 초점 구문’의 전체적인 설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극단 초점 구문’ ‘(连)XP都VP’에서의 XP는 여러 성분이 사용될 수 있는데, NP, VP, AP 등의 성분이 쓰일 수 있으며, 성분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NP가 XP로 쓰이는 경우 문맥이 존재하지 않아도 척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NP와 문맥이 존재해야만 척도를 이해할 수 있는 NP로 나뉘어진다. XP가 VP일 때 부정문에서 XP가 복사되어 술어로 쓰이는 경우, 이합사는 단어의 긴밀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VP가 동목구조인 경우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AP가 XP로 쓰이는 경우 ‘沒’ 혹은 ‘了’와 쓰일 수 있는 동태적 의미가 강한 AP와 쓰일 수 있다.

‘극단 초점 구문’의 ‘都’자문과 ‘也’자문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都’자문은 강세로 ‘극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也’자문은 문맥을 통해 ‘극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都’와 ‘也’의 기본 의미는 하나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척도를 형성하는 ‘극단 초점 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기존의 언급된 성분을 구정보로 여기고, 언급되지 않은 성분을 신정보로 여기는 견해에는 모순점이 있다. 본고는 이미 알고 있는 성분이 초점이 될 수 있고, 모르는 성분이 화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활성화에 의거한 구정보 및 신정보의 기준이 아닌 Lambrecht(1994)의 이론에 입각하여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는 XP 이외의 성분이 ‘都’ 뒤의 성분에 의해 진술되는 내용을 만족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언은 이러한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극단 초점 구문’은 대안집합을 형성하여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XP보다 가능성이 더 큰 대안성분이 ‘都’ 뒤의 성분이 진술하는 내용을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Lambrecht의 정보구조 이론과 화제 및 초점의 특징에 입각하여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하였다. XP는 전제와 단언을 구별해주는 화용적 성분이며,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XP는 휴지할 수 없고 생략 불가하며 의문대사의 대답이 될 수 있다. ‘극단 초점 구문’의 의미는 ‘连’자 혹은 강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连’은 초점표지이며,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XP 앞에 부가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극단 초점 구문’에서의 XP를 초점으로 보았으며, NP가 XP일 경우에는 NP가 초점이다. VP 혹은 AP가 XP로 쓰일 경우에는 VP가 초점이며 XP가 술어에 복사되어 다시 한 번 출현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초점으로 확장되게 된다. 화자는 XP를 부가함으로써 ‘극단 초점 구문’을 새로운 정보로 전달하며, XP를 초점으로 나타내기 위해 정보를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영어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다양한 언어에서의 ‘극단 초점 구문’에서 XP는 초점으로 사용된다.

주요어 : 극단 초점 구문, 정보구조, 화제, 초점, 인지언어학

학 번 : 2014-22232

〈목 차〉

【국문초록】	i
1. 서론	1
1.1 문제 제기	1
1.2 선행연구	4
1.2.1 XP를 화제로 보는 견해	4
1.2.2 XP를 초점으로 보는 견해	8
1.2.3 XP를 다양한 정보구조로 보는 견해	10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2.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	14
2.1 XP가 NP인 경우	14
2.2 XP가 VP인 경우	17
2.3 XP가 AP인 경우	25
2.4 ‘连…都’와 ‘连…也’구문의 비교	26
3. 무표지 극단 초점 구문	31
3.1 ‘都’가 쓰인 극단 초점 구문	31
3.2 ‘也’가 쓰인 극단 초점 구문	37
3.3 ‘都’자문과 ‘也’자문의 비교	38

4.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	46
4.1 화제와 초점의 개념 설정	46
4.2 XP의 정보성	51
4.3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	56
4.4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 분석	59
4.5 한국어 ‘극단 초점 구문’과의 비교 분석	72
5. 결론	76
【참고문헌】	78
【中文摘要】	83

<표 목 차>

<표2-1> 이합사 성립 양상	19
<표2-2>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의 XP 성분	26
<표2-3> ‘连…都’구문 XP 분석	27
<표2-4> ‘连…也’구문 XP 분석	27
<표2-5> ‘连…也’구문과 ‘连…也’구문 대조항 분석	28
<표3-1> ‘都’자문 XP 분석	39
<표3-2> ‘也’자문 XP 분석	41
<표3-3> ‘都’자문과 ‘也’자문의 ‘극단’ 의미 여부	43
<표4-1>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	51
<표4-2> 구정보 및 신정보 출현빈도	53
<표4-3> XP 품사 유형별 구정보 및 신정보 출현빈도	53

<그 립 목 차>

<그림3-1> ‘극단 초점 구문’의 집합 구성 성분	32
<그림3-2> ‘극단 초점 구문’의 척도	33
<그림3-3> ‘극단 초점 구문’의 문맥 관련 척도	34
<그림4-1> 확인가능성 체계	49

1. 서론

1.1 문제 제기

현대 중국어에서 ‘都’가 ‘모두’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都’는 ‘모두’의 의미 외에 ‘극단’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극단’이란 최소점이나 최대점으로 척도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함을 나타낸다. 또한, 현대 중국어의 ‘连…都’구문도 ‘극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 (1) a. 连他们都不去.
- b. 连他们也不去.

(1)은 ‘그들조차 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극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1)에서 ‘连’을 생략하면 중의성이 생기며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 (2) a. 他们都不去.
그들은 모두 가지 않는다.
그들조차 가지 않는다.
- b. 他们也不去.
그들도 가지 않는다.
그들조차 가지 않는다.

(2)는 중의성을 띤다. ‘都’와 ‘也’는 ‘극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吕叔湘(1980) 등의 학자들은 두 구문이 ‘극단’의 의미를 나타낼 때 호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두 구문의 ‘극단’ 의미에 대해 언급

한 바가 있지만, 그들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3)의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都’와 ‘也’는 기본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连’자가 없을 경우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두 구문 모두 ‘극단’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본고는 두 구문에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왜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되는 것인지 통사론과 화용론 두 부분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극단 초점 구문’의 구조 ‘(连)XP{都/也}VP’에서의 XP에는 여러 성분이 사용될 수 있다. 본고는 XP가 단어, 구와 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구조의 성분을 포함할 수 있고, XP로 NP, VP, AP 등의 성분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서술의 편의를 위해 ‘극단 초점 구문’을 ‘(连)XP{都/也}VP’의 구조로 표시하였다.

통사적으로는 XP에 사용되는 성분의 유형을 분류하여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을 비교하고, ‘都’자문과 ‘也’자문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화용적으로는 정보구조 이론에 입각하여 ‘극단 초점 구문’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는데, ‘극단 초점 구문’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극단 초점 구문’은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 시키는지와 관련된다.

(3) A: 明天是你的生日, 你知道吧?

내일은 너 생일이야, 알지?

B: 哎哟! 我连自己的生日都忘记了.

아이고! 나는 내 생일도 잊어버렸네.

기존의 정보구조 연구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구 정보를 화제로, 언급된 적이 없는 신정보를 초점으로 분석하였다. (3B)의 발화전에 ‘生日’가 A에 의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XP를 화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 외에도 XP를 화제초점 혹은 초점으로 보는 견해, 다양한 정보구조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都’, ‘也’, ‘连…都’, ‘连…也’ 네 가지 ‘극단 초점 구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유사점이 있다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이 네 가지가 있는 이유, 차이점이 있다면 네 가지 형식이 동일하게 ‘극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대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극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극단 초점 구문’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의 ‘도, 조차, 마저, 까지’와 영어의 ‘even’ 등 다양한 언어에서 유사한 구문이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의 ‘극단 초점 구문’과 현대 중국어의 ‘극단 초점 구문’은 완벽하게 대응되지 않을 때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4) 连吃都不吃.
먹지도 않는다.

XP로 동사가 쓰였을 때, 술어 부분에는 동사가 다시 한 번 더 출현하였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두 언어의 ‘극단 초점 구문’에는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으며,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어의 ‘극단 초점 구문’과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면 중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XP에 이합사가 쓰였을 때 이합사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 (5) a. 连见面都不想见.
b. 连面都不想见.
(6) a. *连帮忙都不想帮.
b. *连忙都不想帮.

(5)는 문법적이지만, (6)은 문법적이지 않다. 이처럼 같은 성분이 XP에 쓰

이는 경우에도 성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극단 초점 구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 대해 연구한다면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선행연구와는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선행연구

‘극단 초점 구문’은 학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극단 초점 구문’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이 존재하는 반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나아가 정보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각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극단 초점 구문’에 대한 정보구조 연구는 XP를 화제로 보는 견해, 초점으로 보는 견해, 다양한 구조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1.3에서는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2.1 XP를 화제로 보는 견해

XP를 화제로 보는 학자로는 曹逢甫(1987), 劉丹青·徐烈炯(1998) 등이 있다.

曹逢甫(1987)를 살펴보면, 그는 XP를 화제로 보면서 XP가 다음과 같은 화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7) a. XP는 항상 화제 연쇄 중 첫 번째 문장의 시작부분에 위치한다.
 b. XP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임의로 분리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휴지사가 나타날 수 있다: 啊(呀), 呢, 末.
 c. XP는 항상 지시적으로 한정 혹은 총칭이다.
 d. XP는 그 의미 영역을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e. XP는 ‘连’자 화제 연쇄 중 참여하는 모든 NP의 대명사화 혹은 생략을 통제할 수 있다.
 f. XP가 문장의 주어일 때를 제외하고, 재귀화의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XP가 (7)에서 언급한 화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8) 连星期天他都去上班, 他都不休息.

그는 일요일에도 출근을 한다. 그는 쉬지도 않는다.

그는 (8)을 통해, XP가 두 평언의 화제 연쇄 중 시작부분에 위치하고 XP가 화제 연쇄 중 참여하는 모든 NP의 대명사화 혹은 생략을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7a), (7d)와 (7e)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XP가 항상 화제 연쇄 중 첫 번째 문장의 문두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我觉得他很聪明, 他连老师不会的题目都会做.”와 같은 문장에서는 XP가 첫 번째 문장의 시작부분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 초점 구문’이 항상 (7a)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9) a. *连他呀/呢数学都不喜欢.
 b. *他连数学呀/呢都不喜欢.

그는 (9)를 통해 XP가 (9b)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코퍼스를 참고하였지만 XP가 분리될 때 그 사이에 휴지사가 오는 예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9b)의 특징에 의문이 든다.

- (10) a. 连那个人都做得了, 何况是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너는 말할 필요도 없다.
b. 连人都做得了, 何况是神.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신은 말할 필요도 없다.
c. ?连一个人都做得了.
한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는 (10)을 통해 XP가 한정 혹은 총칭이어야 하며, 아닐 경우에는 문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7c)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我连一个字都不认识”, “张三连一分钱都收”와 “张三连一座金山都敢要” 등의 문장은 비문이 아니기 때문에 XP가 항상 한정 혹은 총칭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XP가 항상 화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XP를 화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劉丹青·徐烈炯(1998)은 문장안의 성분을 배경으로 하는 초점은 [+부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문장 외의 담화성분이나 인지성분을 배경으로 하는 초점은 [+대조]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초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자연초점[+부각][-대조], 대조초점[+부각][+대조], 화제초점[-부각][+대조]. 그리고 XP는 화제초점이며 [+부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1) a. 他三十年来一直只在芜湖.
그는 삼십년 동안 계속 우후에서만 살았다.
b. 他在芜湖一直住了三十年.
그는 우후에서 계속 삼십년 동안 살았다.

- (12) a. '老王上午借给老李一笔钱.'

라오왕은 오전에 라오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 b. 老王上午借给'老李'一笔钱.

라오왕은 오전에 라오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 (13) a. 晚上么, 朝北的房间会有暖气的.

저녁에는, 북쪽의 방에 보일러가 들어 올 거야.

- b. 晚上朝北的房间么, 会有暖气的.

저녁에 북쪽의 방에는, 보일러가 들어 올 거야.

중국어에서는 문미에 자연초점이 있기 때문에 (11a)에서는 '芜湖'가 초점이고 (11b)에서는 '三十年'이 초점이라고 하였다. 대조초점은 언어의 특정한 수단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12a)에서는 '老王'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대조초점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老王'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였고, (12b)에서는 '老李'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대조초점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老李'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13a)는 '晚上'이 '么'와 같이 화제초점이 되어 문장이 화자와 청자의 공유된 지식속의 '白天'을 배경으로 하여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13b)에서는 '朝北的房间'이 화제초점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 (14) 连老王都忍受不下去了.

라오왕도 참아낼 수가 없다.

그들은 '连'은 앞에 붙는 화제표지이며 그 뒤에 오는 성분은 화제초점이고 대조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 뒷부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보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4)에서는 '老王'이 화제초점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며 문장의 중심은 '忍受不下去'라고 하였다.

劉丹青·徐烈炯은 대조의 기능이 초점에만 있는 것으로 보고 [-부각][+대조]의 기능을 하는 성분을 화제초점이라고 하였다.¹⁾ 그러나 화제에도 대조의

기능이 있을 수 있으며, 화제와 초점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화제초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화제와 초점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화제와 초점의 개념을 더욱 혼동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화제초점을 대조화제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인다.²⁾

그들은 화자 태도의 주관성을 참고하여 ‘극단 초점 구문’을 정보의 신구(新旧)가 아닌 정보의 강도(強度)로 판단하였는데 강도는 화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신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화자의 주관으로 분석하는 것은 화자의 내재된 생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문장 외의 담화성분이나 인지성분을 배경으로 하는 초점은 [+대조]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래 초점은 문장외의 담화성분이나 인지성분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대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1.2.2 XP를 초점으로 보는 견해

袁毓林(2006)은 ‘连’뒤의 성분이 초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극단 초점 구문’에서 ‘都’가 초점성분인 NP를 결속하고 초점영역의 다른 성분들과 대조를 이루게 하여 기대에 어긋나는 구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³⁾ 그는 100개 이상의 문장을 분석하였는데 ‘连...都’ 구문에서 화제와 평언이 모두 신정보인 문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화제가 신정보이고 평언이 구정보인 문장, 화제가 구정보이고 평언이 신정보인 문장이 있지만 거의 없

1) 劉丹青·徐烈炯(1998)에서는 [±突出]로 작성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부각]으로 번역하였다.

2) 周士宏(2009)에 의하면, 대조화제 구문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화제에 대한 다른 진술(즉, ‘술어 VP’의 대조)이다. 劉丹青, 徐烈炯도 화제초점이 술어성분이 대조되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화제초점과 대조화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袁毓林(2006)는 ‘극단 초점 구문’을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連 NP + 都/也 VP’로 표시하였다.

다고 하였다.

따라서 ‘连…都’ 구문을 문장이 하나의 새로운 소식을 나타내는 사건보고문(news sentence, 新聞句)이라고 하였는데 화자나 청자의 예상 밖의 정보를 나타내는 문장초점이라고 하였다. 이는 Lambrecht(1994)가 말하는 문장초점과 비슷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 袁毓林은 ‘连…都’ 구문 전체를 초점으로 본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15) 怎么说你这右派当得冤? ~ 我连辩论会也没参加过, ...

뭐라고? 너 보수파 된 것 억울하다고? ~ 나 변론회도 참석 안 해봤어.

(16) 他们要是把你炒了鱿鱼呢? ~ 就连这点钱他们也要不回来了.

그들이 너를 해고하면 어떻게 해? ~ 그럼 그들은 이 돈도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는 화제와 평언이 신정보 혹은 구정보인 것과는 무관하게 ‘连…都’ 구문이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连…都’ 구문이 강조하는 것은 화제와 평언 사이의 예상 밖의 진술 관계이기 때문에 ‘连…都’ 구문이 사건을 나타낼 수 있고 문장 전체가 초점이므로 ‘连’ 뒤에 오는 성분은 초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극단 초점 구문’에서는 ‘都’가 앞의 성분인 NP를 결속하지만 본래 ‘都’만 있는 문장에서는 ‘都’가 뒤의 성분을 결속한다는 것에 주의하였다. ‘都’가 결속하는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连’의 출현으로 인해 초점의 범위가 결정되며 문장의 의미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连’을 부가함으로써 중의성이 사라지게 되고 ‘都’가 XP만을 결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连NP{都/也}VP’에서 NP와 VP가 화제와 진술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XP가 화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NP가 ‘都’

4) Lambrecht(1994)는 초점 구조의 유형을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 문장초점으로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에게 결속되는 초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Lambrecht의 견해에 의하면 문장 초점에는 화제가 존재하지 않는다.⁵⁾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서는 정보구조의 개념에 있어서 모순점이 발견된다.

1.2.3 XP를 다양한 정보구조로 보는 견해

백은희(2001)는 기존 연구들이 ‘강조’라는 주관적인 개념과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라는 ‘신정보’의 객관적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Vallduví(1993)의 정보구조 개념을 통해 ‘连…都’ 구문이 상이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보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7) a. 他连张三也不喜欢.
그는 장싼조차 싫어한다.
b. 他不喜欢同学. (他)连张三也(/都)不喜欢.
그는 학우들을 싫어한다. (그는)장싼조차 싫어한다.
c. [L 他][F 连张三也][T 不喜欢]⁶⁾

5) 다음은 Lambrecht(1994:306)가 제시한 문장초점 구조의 예문이다.

A: What happened?

B: My car broke down.

그는 위와 같은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문장: My car broke down.

전제: —

단언: “speaker’s car broke down”

초점: “speaker’s car broke down”

초점영역: S

이 예문에서 단언과 초점은 같다. 초점과 화제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이 문장에 서는 화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Vallduví(1993)는 삼항계층분할을 제시하였는데 문장을 연결부, 초점부, 꼬리부로 나누었다. L은 연결부, F는 초점부, T는 꼬리부를 나타낸다.

그녀는 (17a)가 (17b)와 같은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17a)에서 두 번째 문장을 발화하는 시점에서 그가 급우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 문장에서 언급된 구정보로서 바탕부이며 그가 급우들 가운데 가장 싫어할 가능성이 적은 극단적인 한 요소로서의 ‘张三’은 신정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17a)를 (17c)와 같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连’뒤의 성분은 초점부라고 하였다.

(18) A: 明天是你的生日, 你知道吧?

내일은 너 생일이야, 알지?

B: 哎哟! 我连自己的生日都忘记了.

아이고! 나는 내 생일도 잊어버렸네.

(18') [L 我连自己的生日都][F 忘记了]

(18B)에서 ‘自己的生日’는 앞 문장에서 이미 나온 구정보이며 ‘忘记了’가 신정보로서 초점부라고 하여 이 문장을 (18')과 같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XP는 연결부라고 하였다.

(19) 他丢了我的书, 连句道歉的话也没有.

그는 내 책을 잃어버렸는데, 사과할 말 한마디도 안 했다.

(19')[F 连句道歉的话也没有]

(19)의 예문에서는 ‘连…都’ 구문 전체가 신정보로서 초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9')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며 ‘连’뒤의 성분은 초점부라고 하였다.

이처럼 백은희는 ‘극단 초점 구문’이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지만 ‘극단 초점 구문’을 분석할 때 성분의 활성화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청자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활성화된 성분이라도 초점이 될 수 있고 활성화 되지 않은 성분이라도 화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논문들은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할 때 다양한 기준으로 화제와 초점에 대해 정의하였다. 언급했던 ‘극단 초점 구문’의 특징에 모순점, 초점과 대조의 구분에 대한 모호성, 화제와 초점의 구분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언급된 정보를 구정보로 여기고,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신정보로 여기는 오류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국어에서는 ‘극단 초점 구문’으로 ‘连…都’구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문이 존재하므로 여러 구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극단 초점 구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고는 현대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인 ‘连…都’, ‘连…也’, ‘都’와 ‘也’ 각각의 통사적 특징 및 제약과 화용적 특징 및 제약을 기술하고 설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극단 초점 구문’의 포괄적인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의 통사적 특징과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XP에 NP, VP, AP 등의 성분이 쓰일 때의 특징과 제약에 대해 분석해보고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무표지 극단 초점 구문’인 ‘都’자문과 ‘也’자문에 대해 살펴보고, 두 구문이 어떤 방법으로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분석할 것이며, 두 구문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정보구조 이론을 통해 현대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학자에 따라 개념이 다른 화제와 초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설정하고, 정보구조 이론과 화제와 초점의 특징에 의거하여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에도 나타나는 ‘극단 초점 구문’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정보구조는 대화자의 심리 상태가 어휘 문법적 구조에 반영되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이다. 구조에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 혹은 기능만을 각각 분석하는 것보다 화자의 인지가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심리 상태로 인해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극단 초점 구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해 학자들은 각각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连’자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고 XP를 초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강조와 초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영철(2006)의 견해에 의하면, 강제는 초점뿐만 아니라 화제에도 올 수 있다. 화제가 대조될 경우 화제에도 강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강조와 초점의 개념을 하나로 보는 것은 모순된다. Lambrecht(1994)에 의하면, 초점은 화자에게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라 단언이 전제와 구별되게 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이다. 따라서 강조와 초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连’자와 ‘都’자 사이의 성분인 XP의 성분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극단 초점 구문’의 통사적 특징과 화용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예문은 중국 언어 코퍼스 CUC(媒体语言语料库), CCL(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语料库), BCC(北语汉语语料库)의 예문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본고는 다양한 언어에서 출현하는 ‘극단 초점 구문’을 유형론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고, 한국어와의 대응에 있어서의 제약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

본고는 ‘连’자와 함께 ‘극단 초점 구문’을 나타내는 구문을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으로 부른다.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은 대표적으로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이 있다.

CCL에서 500개의 예문을 분석해본 결과,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으로는 NP, VP, AP, 문장 등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장에서는 XP로 쓰일 수 있는 성분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들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连…都’구문과 ‘连…也’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2.1 XP가 NP인 경우

본고에서는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을 XP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형식의미론에서는 부호를 통해 언어를 논리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언어가 묘사하는 상황을 수학적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⁷⁾ 본고는 부호로 다른 유형의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

XP의 척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화자와 청자는 문맥 혹은 상황 등을 통해 발화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0) a. 连李四都会做.

$Z(l) \rightarrow Z(z)^8$

李四도 할 수 있다.

7) John I. Saeed(2004:384) 참조.

8) 대문자는 술어문자(predicate letter)를 나타내며, 소문자는 주어논항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개체정항(individual constant)라고 부른다.

b. 连李四都不会做.

$$\neg Z(l) \rightarrow \neg Z(w)$$

李四도 못 한다.

화자의 인지에 $z(\text{张三}) > l(\text{李四}) > w(\text{王五})$ 라는 척도가 존재하고 청자도 화자의 인지 속에 존재하는 척도와 유사한 척도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 하에 화자는 위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와 청자가 张三, 李四, 王五와 같은 반에 있는데 张三이 가장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으로는 李四, 王五의 순서대로 공부를 잘한다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 화자는 이러한 발화를 할 수 있으며 청자가 이러한 발화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극단 초점 구문’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XP와 관련된 척도를 생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XP의 척도가 명확한 경우, 문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는 척도를 생성해 낼 수 있으며 발화의 대조항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1) a. 他连大学都读过.

$$D(d) \rightarrow D(x)$$

그는 대학교도 다녔다.

b. 他连小学都没读过.

$$\neg D(x) \rightarrow \neg D(d)$$

그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화자의 인지에는 $d(\text{大学}) > z(\text{中学}) > x(\text{小学})$ 라는 척도가 존재하며, 청자도 똑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청자의 인지에도 이러한 척도가 존재한다고 믿고 (21)과 같은 발화를 하는 것이다. 문화와 경험 등에 따라 사람들의 인

지에 있는 척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와 같은 XP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비슷한 인지를 가지고 있고, 화자와 청자가 이러한 전제하에 그들의 인지에 상응하는 발화를 하는 것이다.

(21a)를 발화하기 전 화자는 그의 배경과 상황 등을 고려해 그가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상 외로 그가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나타내며, (21b)를 발화하기 전에도 역시 그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그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21a)의 발화를 통해 청자는 그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도 다녔을 것이라는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21b)의 발화를 통해 청자는 그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므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가 XP를 통해 쉽게 척도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문맥 등에 의존하지 않아도 화자와 청자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직급, 기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성분(예: 第一题)등이 XP로 쓰일 경우에 척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XP와 술어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척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류들과 달리 XP만으로는 척도를 생각해낼 수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22) 连门都不让进.

$\neg J(m) \rightarrow \neg J'(m')$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이러한 발화를 할 때 화자와 청자의 인지에는 기본적으로 进门>见面>讲话와 같은 척도가 존재하는데 $J(m)>J'(m')>J''(h)$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문화 혹은 경험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생기는 척도가 아니다. 즉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말을 걸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화자와 청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XP인

‘門’만을 통해서만 척도를 생성해 낼 수 없으며 문장의 술어부분인 ‘進’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에 대응하는 척도를 생성해 낼 수 있다.

2.2 XP가 VP인 경우

XP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로 확장되어 쓰일 수 있다. XP가 동사인 경우에도 화자와 청자는 척도를 생각해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3) a. 他连抓蜻蜓都怕.

$P(q) \rightarrow P(s)$

그는 잠자리를 잡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b. 他连抓蛇都不怕.

$\neg P(s) \rightarrow \neg P(q)$

그는 뱀을 잡는 것조차 무서워하지 않는다.

(23)에서는 VP가 논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를 할 때 화자와 청자의 인지에는 기본적으로 抓蜻蜓>抓蛇와 같은 척도가 존재하는데 $P(q)>P(s)$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잠자리를 잡는 것조차 무서워하기 때문에 뱀을 잡는 것은 무서워 할 것이라는 것을 화자와 청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사구 외에도 동사원형이 XP로 쓰일 수 있다.

(24) a. 连理都不理.

$\neg L(l) \rightarrow \neg K(k)$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24)에서는 VP가 술어를 담당하고 있다. XP가 동사여도 화자와 청자는 척

도를 생각해낼 수 있으며 (24)에서의 척도는 l(理)>k(看)>j(讲)이다. XP가 동사인 경우에는 문맥이 없이도 척도가 형성될 수 있다. 상대도 해주지 않았으니 보거나 말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대조항을 생각해낼 수 있다. 이 유형에서 ‘유표지 극단 초점’구문은 ‘连+XP+都+부정사+XP’의 구조로 쓰인다. 즉 XP를 부정형으로 변환하여 술어 부분에 다시 한 번 쓰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극단 초점 구문’에서는 술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을 동사 복사로 채워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VP가 XP로 쓰일 때 동사 복사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5) a. 他连结婚都不想结.

그는 결혼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b. 他连婚都不想结.

그는 결혼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26) a. *他连走火都不想去.

b. *他连火都不想去.

(25)는 문법적이지만 (26)은 비문법적이다. (25)와 (26)는 모두 술어 부분에 XP를 복사한 것이다. 동사원형과 이합사의 경우에는 동사 복사가 가능하지만, 같은 이합사라도 (25)와 (26)는 문법적인지의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 복사의 경우 이합사가 ‘극단 초점 구문’에서 사용될 때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는 段業輝(1994)에 의거하여, 이합사를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V가 독립형태소, O가 의존형태소인 경우이다. 두 번째, V가 의존형태소, O가 독립형태소인 경우이다. 세 번째, V와 O가 독립형태소인 경우이다. 네 번째는 V와 O가 의존형태소인 경우이다. ‘극단 초점 구문’에 위의 네 가지 유형의 이합사가 쓰이고 술어에 동사가 복사되는 경우의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를 보자.

이합사 유형	해당 단어
V(독립형태소)O(의존형태소)	
성립 되는 경우	冲澡, 洗澡, 泡澡, 让道, 站岗, 放哨, 见面, 离婚, 告状, 签字, 摔跤, 发言, 住院, 过关, 搭腔, 道歉, 化装, 考试, 散步
성립 되지 않는 경우	塌方, 塌台, 傻眼, 倒霉, 签约, 破例, 没劲, 够呛, 吃惊, 建都, 造孽, 开眼, 缺德, 定局, 走火, 成亲, 亏本, 破财, 捉迷藏, 出洋相
V(의존형태소)O(독립형태소)	
성립 되는 경우	冒险, 带头, 结帐, 操心, 开头, 造反, 认错, 开玩笑
성립 되지 않는 경우	迷路, 发抖, 赌气, 曝光, 遂心, 发愁, 辍学, 结仇, 着急, 发病, 闭幕, 留神, 留心, 伤心
V(독립형태소)O(독립형태소)	
성립 되는 경우	吸烟, 榨油, 逃课, 生气, 叹气, 撒尿, 报名, 张嘴, 点名, 睡觉, 放屁, 做梦, 拜师, 干活, 烧香, 当兵, 喘气, 打主意
성립 되지 않는 경우	乱套, 受气, 翻脸, 砸锅, 叫停, 算命, 滚蛋, 放心, 帮忙, 担心, 骂街, 丢脸, 跑车, 立功, 顶用, 赏脸, 出汗, 流泪, 养伤, 害怕, 害羞, 出丑
V(의존형태소)O(의존형태소)	
성립 되는 경우	鞠躬, 结婚
성립 되지 않는 경우	释义, 负责, 检讨

〈표2-1〉 이합사 성립 양상

네 가지 유형의 이합사의 성립 여부는 유형에 관계없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성립 여부에 있어서 위의 이합사들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7) a. 连见面都不想见.
 b. 连面都不想见.
 (28) a. 连让道都不想让.
 b. 连道都不想让.

(29) a. *连帮忙都不想帮.

b. *连忙都不想帮.

(30) a. *连翻脸都不想翻.

b. *连脸都不想翻.

이합사가 XP에 쓰이는 경우 (27)과 (28)은 모두 문법적이지만, (29)와(30)은 비문법적이다. (27)은 ‘만나는 것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28)은 ‘길을 양보하는 것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위의 분석을 통해 ‘连VO都不V’와 ‘连O都不V’에서 이합사가 문법적인지의 여부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사 복사의 경우 이합사가 문법적인 경우에는 ‘见面’, ‘让道’는 ‘见’과 ‘面’, ‘让’과 ‘道’로 각각 분리하여도 같은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帮忙’, ‘翻脸’은 ‘帮’과 ‘忙’, ‘翻’과 ‘脸’으로 각각 분리할 경우 같은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迷路’는 ‘길을 잃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迷’는 ‘미혹시키다’, ‘路’는 ‘길’의 의미를 나타낸다. ‘翻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다’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翻’은 ‘뒤집히다’, ‘脸’은 ‘얼굴’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의 두 어휘는 분리되었을 경우 본래 나타내던 전체적인 어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이합사의 긴밀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1) a. 连洗澡都不想洗.

b. 连澡都不想洗.

(32) a. *连倒霉都不想倒.

b. *连霉都不想倒.

(31)과 (32)에서 이합사의 성립여부는 다른 양상을 띈다. (31)은 문법적이며 ‘목욕하는 것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32)는 비문

법적이다. ‘洗澡’와 ‘倒霉’는 긴밀도에 차이를 보인다. ‘洗澡’는 ‘倒霉’보다 확장되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긴밀도가 더욱 높다. ‘洗澡’는 ‘洗了澡’, ‘洗起澡’, ‘洗一个澡’, ‘洗一次澡’, ‘洗你的澡’까지 확장 가능한 반면, ‘倒霉’는 ‘倒了霉’, ‘倒起霉’까지는 확장이 가능하지만 ‘*倒一个霉’, ‘*倒一次霉’, ‘*倒你的霉’로는 확장될 수 없다. 따라서 ‘洗澡’는 ‘倒霉’보다 긴밀도가 높으며, 긴밀도는 이합사가 ‘극단 초점 구문’에서 ‘连VO都不V’와 ‘连O都不V’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단 초점 구문’에서 동사 복사가 존재할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이합사는 대부분 비문법적이다.

- (33) a. *连翻脸都不想翻.
 b. *连缺德都不想缺.
 c. *连亏本都不想亏.
 d. *连发愁都不想发.

‘극단 초점 구문’은 가능성이 적은 성분을 긍정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성분을 부정하여 극단을 나타내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VP를 동사 복사인 술어로 부정을 하면 그 의미가 극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 초점 구문’에 동사 복사가 쓰일 때는 구조적인 제약과 의미적인 제약이 함께 존재한다. VP가 동목구조일 경우에도 ‘극단 초점 구문’에 쓰일 수 있으며, 동사 복사의 경우에도 성립된다.

- (34) a. 连去北京都不想去.
 북경에 가는 것조차 싫어한다.
 b. 连吃饭都不想吃.
 밥을 먹는 것조차 싫어한다.
 c. 连过马路都不想过.
 길을 건너는 것조차 싫어한다.

- d. 连见朋友都不想见.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싫어한다.

동목구조가 XP로 쓰이는 경우 술어에 동사 복사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비문법적인 경우가 많다.

- (35) a. *连去北京都不去.
b. *连吃饭都不吃.
c. *连过马路都不过.
d. *连见朋友都不见.

술어에 ‘부정문+동사 복사’가 바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문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경제성의 원리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화자들은 ‘连VO都不V’의 형식보다는 ‘连O都不V’의 형식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동사 복사가 출현할 경우 조동사 혹은 다른 문맥의 도움을 받는 성향이 강하다. 동목구조가 XP에 사용될 때, 문장의 성립여부는 목적어의 지시성에 영향을 받는다.

- (36) a. 连看书都不想看.
책을 보는 것조차 싫어한다.
b. ?连看一本书都不想看.
책 한 권보는 것조차 싫어한다.
c. *连看这本书都不想看.
(37) a. 连喝杯酒都不会喝.
술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못한다.
b. 连喝一杯酒都不会喝.
술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못한다.
c. *连喝这杯酒都不会喝.

(36)과 (37)에서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라 문장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동사 복사가 출현하는 ‘극단 초점 구문’의 경우 목적어가 지시적인 성분일수록 문장이 비문법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에서 VP가 XP로 사용되며 동사 복사가 출현할 경우 한국어 ‘극단 초점 구문’과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

- (38) a. 连去都不去.
가지도 않는다.
b. 连报名都不想报.
지원하기조차 싫어한다.
c. 连听老师的话都不想听.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조차 싫어한다.

(38)의 예문에서와 같이 ‘극단 초점 구문’에 동사 복사가 출현할 경우 한국어로 대응되는 문장에서는 동사 복사가 출현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동사 복사가 출현하지 않고 ‘않다’를 사용하여 부정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동사 복사의 형태로 부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와 같이 ‘不干’을 사용하여 부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XP에 VP가 쓰이는 경우 ‘不干’으로 부정하는 경우를 CCL과 BCC의 코퍼스를 조사한 결과 총 8개의 예문을 찾을 수 있었다.

- (39) a. 这事你连考虑一下都不干?
너는 이 일을 잠깐 고려해보는 것조차 안 할 거니?
b. 她连陪你跳一次舞都不干.
그녀는 너와 춤 한 번 추는 것조차 안 할 거야.
(40) a. 连协作出版都不干.
공동 출판하는 것조차 안한다.
b. 他又不愿意, 而且忽然的辞职, 连维持到年假都不干.

그는 또 하기 싫어하며, 갑자기 퇴사를 원했는데, 연말 휴가 때까지 유지하는 것조차 안했다.

한국어와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不干’으로 VP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동사가 VP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문법적으로 나타난다.

- (41) a. *连跳都不干.
b. *连跑都不干.
c. *连洗澡都不干.
d. *连吃饭都不干.

‘不干’이 술어로 쓰일 경우 단음절 동사 혹은 이음절 동사가 XP에 쓰인 예문은 비문법적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不干’이 술어일 때 XP는 동사구일 경우에만 문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a. 连问都不问.
묻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b. *连问一声好都不问.
c. *连向我们问一声好都不干.
d. 你们的嘴唇连向我们问一声好都不干.
너희들의 입술은 우리한테 인사 한 번 하는 것조차 안한다.

동사가 ‘극단 초점 구문’에 쓰일 때는 술어에 동사 복사가 출현할 수 있지만, 동사가 동사구로 확장될 경우에는 동사 복사가 출현할 경우 문장이 비문법적이게 된다. 따라서 동사구가 XP로 쓰일 때는 술어로 ‘不干’을 사용할 수 있다.

2.3 XP가 AP인 경우

동사 복사의 경우 ‘극단 초점 구문’에서 AP가 XP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AP가 XP로 쓰일 때 모든 AP가 문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43) a. *连漂亮都不漂亮.
 b. *连快都不快.
 c. *连可爱都不可爱.
 d. *连贵都不贵.

(43)의 예문에서는 AP가 XP로 쓰였을 때 문장들이 모두 비문법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XP에 AP가 쓰였지만 문법적이다.

- (44) a. 这衣服连干都没干你就穿上了.
 옷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너는 입어버렸다.
 b. 眼圈儿连红都没有红.
 눈시울이 붉어지지도 않았다.
 c. 连弯都没弯就扔了.
 휘지도 않았는데 버려버렸다.
 d. 连熟都没熟他就吃了.
 익지도 않았는데 그는 먹어버렸다.

AP가 XP로 쓰일 경우 위의 예문들은 문법적이다. (44)에서의 AP는 모두 ‘了’와 함께 쓰일 수 있다.

- (45) a. 这衣服干了.
 옷이 말랐다.

- b. 眼圈儿红了.
눈시울이 붉어졌다.
- c. 弯了.
휘었다.
- d. 熟了他就吃.
그는 익으면 먹는다.

‘극단 초점 구문’에서 동사 복사의 경우 쓰일 수 있는 AP는 모두 ‘了’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不’로 부정되는 AP는 쓰일 수 없으며 ‘沒’로 부정되는 AP는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AP는 동사 복사의 경우 ‘극단 초점 구문’에서 XP로 쓰일 수 없지만, 변화를 나타내는 동태적인 AP는 쓰일 수 있다.

2.4 ‘连…都’와 ‘连…也’구문의 비교

劉月華(2001) 등의 학자들은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CCL에서 500개의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을 분석한 결과, 명사구, 동사구, 문장이 쓰이는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구	동사구	문장
连…都	84.5%	13%	2.5%
连…也	89%	4.5%	6.5%

〈표2-2〉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의 XP 성분

‘连…都’와 ‘连…也’구문과 쓰이는 XP의 유형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CL을 통해 500개의 예문을 통해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을 분석해보았다.

都					
성분	수량	긍정	부정	대조O	대조X
명사구	55	18	37	16	39
맨명사	32	7	25	12	20
고유명사	4	2	2	1	3
인칭대명사	1	1	0	1	0
채귀대명사	1	0	1	0	1
동사	3	0	3	1	2
동사구	1	1	0	0	1
문장	3	0	3	1	2
총수량	100	29	71	32	68

〈표2-3〉 ‘连…都’구문 XP 분석

‘连…都’구문은 부정문에 많이 쓰였으며 대조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XP로는 명사구와 맨명사가 많이 쓰였다.

也					
성분	수량	긍정	부정	대조O	대조X
명사구	51	24	27	29	22
맨명사	29	15	14	22	7
고유명사	5	4	1	3	2
인칭대명사	2	1	1	1	1
채귀대명사	3	1	2	0	3
동사	3	3	0	1	2
동사구	4	1	3	0	4
문장	3	1	2	2	1
총수량	100	50	50	58	42

〈표2-4〉 ‘连…也’구문 XP 분석

劉月華 등의 학자들은 也가 부정문에 더 자주 쓰인다고 하였지만 ‘连…也’구문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긍정문과 부정문이 골고루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郭春貴(1996)에 의하면, 5개의 문학작품⁹⁾을 통해 분석한 결과 ‘连…都’구문이 긍정문으로 쓰이는 경우는 24회, 부정문으로 쓰이는 경우는 31회이며,

9) 《龍須溝、茶館》, 《張洁小說劇本選》, 《蘇叔陽劇本選》, 《人到老年》과 《冬天的故事》.

‘连…也’구문이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각각 33회 쓰였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连…也’구문은 대조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조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连…也’구문이 여전히 ‘같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에서 대조항이 나타나는 예문이다.

- (46) a. 任何个体, 如果没有间接经验, 且不说发展, 就连生存都不可能.
어떤 개체이든 간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발전은 물론이고 생존조차 할 수 없다.
- b. 中小学生必不可缺的游戏时间和体育锻炼时间没有保障, 连正常的星期日和假期也被挤占, 影响青少年学生身体的健康发展.
초·중학생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오락시간과 체육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기본적인 일요일과 휴일도 점유당해서 청소년들의 신체 건강과 발육을 해치고 있다.

(46a)에서 XP인 ‘生存’의 대조항은 ‘发展’이며, (46b)에서 XP인 ‘正常的星期日和假期’의 대조항은 ‘游戏时间和体育锻炼时间’이다. 대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连…也’구문이 ‘连…都’구문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CCL에서 500개의 구문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대조항O	대조항X
连…都	19%	81%
连…也	59%	41%

〈표2-5〉 ‘连…也’구문과 ‘连…都’구문 대조항 분석

따라서 ‘连…也’구문이 ‘连…都’구문보다 대조항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连…都’구문의 XP가 극단 성분을 지

칭하는 경우가 ‘连…也’구문보다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47) a. 如果连每日相见, 彼此接触, 与你住在一起的邻居都不爱的话, 那你怎么能爱一个看不见的上帝呢?
매일 만나고 교제하며 같이 살아가는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니?
- b. 在街上“行走”的是已被淘汰的马车和电车, 连路灯也是煤气灯.
길에 있는 것은 낡은 마차와 전차이며, 가로등조차 가스등이다.

XP만 보고 판단하였을 때, (47a)에서는 XP에 ‘与你住在一起的’의 성분이 포함되어 XP가 극단 성분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XP만 보고 판단하였을 때, (47b)의 XP인 ‘路灯’은 비록 의외의 성분인 것은 알 수 있지만, 극단 성분인지는 모호하다. 따라서 ‘连…都’구문은 ‘连…也’구문보다 극단적인 성분을 나타내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7b)의 ‘连…也’구문 XP인 ‘路灯’은 극단적인 성분뿐만 아니라 ‘马车和电车’와 병렬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连…也’구문은 극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같음’의 의미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连…也’구문은 대조항이 XP의 앞에 나타나는 반면 ‘连…都’구문은 대조항이 뒤에 나타난다.

- (48) a. 连一个卫生间都管不好, 遑论其他?
화장실조차도 관리를 못하는데,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있나?
- b. 少数知己也不知道他有大政治才能, 恐怕连他自己也不知道.
소수의 친한 친구도 그의 정치적 재능을 몰랐는데, 아마 그 자신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48a)의 ‘连…都’구문에서는 XP인 ‘一个卫生间’이 먼저 출현하고 그 뒤에 ‘其他’를 사용하였다. 극단적인 성분을 부정함으로써 그 뒤에 다른 성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48b)의 ‘连…也’구문에서는 ‘少数知己’를 먼저 언급하고 그 뒤에 XP인 ‘自己’를 부가하여 극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형상으로 미루어 보아, ‘连…都’구문은 ‘连…也’구문에 비해 극단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고, ‘连…也’구문은 극단의 의미와 ‘같음’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의 XP로는 명사구와 맨명사가 많이 쓰였다. 공통적으로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의 XP로는 명사구, 맨명사, 고유명사, 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 동사, 동사구, 문장이 쓰였다.

3. 무표지 극단 초점 구문

본고는 ‘유표지 극단 초점 구문’과는 달리 ‘连’자가 없이 ‘극단 초점 구문’을 나타내는 구문을 ‘무표지 극단 초점 구문’으로 부른다. ‘무표지 극단 초점 구문’은 대표적으로 ‘都’자문과 ‘也’자문이 있다. 본장에서는 ‘都’자문과 ‘也’자문이 ‘무표지 극단 초점 구문’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들이 ‘극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3.1 ‘都’가 쓰인 극단 초점 구문

현대 중국어의 ‘都’자문은 다양한 의미와 구조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都’가 ‘모두(총괄)’의 의미를 나타내며 ‘(XP)+都+VP’의 구조를 띠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都’가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며 ‘XP+都+VP’의 구조를 이루는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都’가 ‘이미’의 의미를 나타내며 ‘(XP)都VP’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문은 세 가지 유형에 대응되는 예문이다.

(49) a. 每个人都是平等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b. 渐渐地, 他便迷上了下棋, 放学后的第一件事就是看下棋, 饭都忘了吃.

서서히 그는 장기에 중독이 되어서 방과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장기를 두는 것이었다.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c. 都十点多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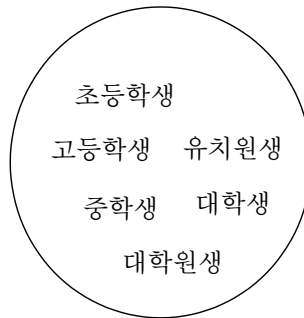
벌써 열시다.

(49a)에서 ‘都’는 ‘모두’의 의미를 나타내며 ‘平等的’에 강세가 있다. (49b)에서 都是 조차의 의미를 나타내며 강세는 ‘饭’에 있다. (49c)에서 都是 ‘이미’의 의미를 나타내며 ‘十点多了’에 강세가 있다. ‘都’가 모두와 ‘이미’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VP에 강세가 있으며 XP가 생략될 수 있다. ‘都’가 조차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XP에 강세가 있으며 XP는 생략될 수 없다. 두 번째 유형의 ‘都’는 다른 두 유형과는 강세와 구조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都’의 두 번째 유형은 다른 두 유형이 나타내지 않는 의미를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都’자문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都’의 기본적인 의미는 ‘총괄’이다. ‘都’는 ‘총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생성한다. ‘都’로 인해 집합이 생성되기 때문에 ‘극단 초점 구문’에서는 척도가 생성될 수 있으며 그 척도를 통해 화자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50) 小学生都会做这道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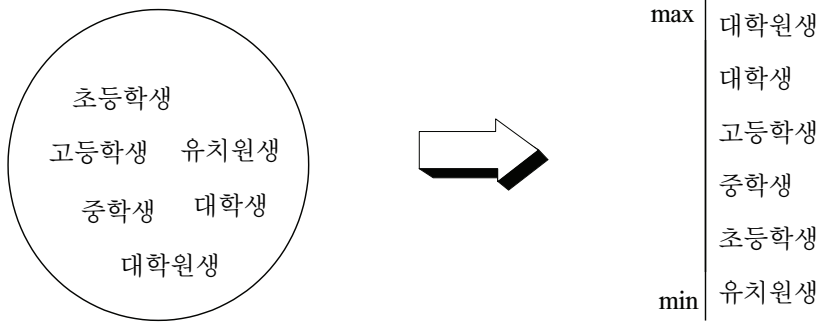
초등학생조차 이 문제를 풀 줄 안다.



〈그림3-1〉 ‘극단 초점 구문’의 집합 구성 성분

(50)의 예문에서는 ‘小学生’에 강세가 있다. (50)에서는 ‘都’로 인해 위와 같이 여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都’가 ‘극단 초점 구문’에 쓰이는 것이다. 이 집합에 다음과 같은 척도가 생성된다.

3. 무표지 극단 초점 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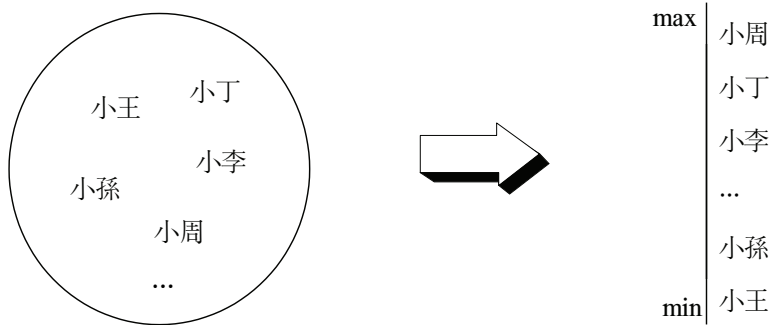


〈그림3-2〉 ‘극단 초점 구문’의 척도

‘都’로 인해 여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 생성되고 집합의 여러 성분들은 화자와 청자의 인지에 따라 성분들 간의 척도가 생성된다. 척도는 화자와 청자의 문화와 경험에 따라 다르게 생성 될 수 있으며 화자와 청자가 비슷한 인지를 지니고 있음으로써 유사한 척도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비슷한 척도를 생각하고 있거나 경험 혹은 문맥을 통해 상대방의 척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자와 청자가 기본적으로 지닌 인지가 아닌 문맥을 통해 척도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51) 小王都讨厌他.

샤오왕조차 그를 싫어한다.



〈그림3-3〉 ‘극단 초점 구문’의 문맥 관련 척도

(51)에서는 小王에 강세가 있다. 小王>小丁>...>小孙>小周 순으로 착하다는 문맥이 있는 경우 화자는 위와 같은 척도를 생성해낼 수 있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는 문맥을 참고함으로써 ‘극단 초점 구문’을 통해 척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화자는 ‘극단 초점 구문’에서 극단적인 성분을 XP로 사용함으로써 척도 내에 있는 다른 성분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 (52) a. 幼儿园的小孩都会做这道题.
유치원생조차 이 문제를 풀 줄 안다.
- b. 小王都讨厌他.
샤오왕조차 그를 싫어한다.
- c. 如果你总是说体制性的问题, 管理体系重新更换, 那么最后是不是连这个老板都要换掉?
만약 너가 계속해서 체계적인 문제가 있어 관리 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면, 결국 사장조차 바꿔 버리는 거 아니야?

‘극단 초점 구문’을 통해 척도가 생성된 후 (52)에서 화자는 유치원생을 궁

정함으로써 척도에 있는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척도의 극단적인 성분인 유치원생을 긍정함으로써 초등학생보다 가능성이 높은 다른 성분을 긍정하는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초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등은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XP가 유치원생이 아닌 초등학생일 경우에도 위의 예문은 성립된다. 초등학생보다 가능성이 높은 다른 성분에 대해서 긍정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 척도에서 초등학생보다 아래에 있는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화자의 인지로 인해 생성된 척도에서 극단적인 성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극단 초점 구문’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즉 본고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성분이란 화자의 주관에 따른 극단적인 성분을 가리킨다. (52b)에서 화자는 가장 착한 ‘小王’도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발화를 통해 ‘小王’보다 척도의 위에 있는 그를 싫어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도 그를 싫어할 것이라는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극단 초점 구문’으로 인해 척도가 생성되며, 척도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 ‘극단 초점 구문’은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52c)역시도 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비록 XP가 척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화자가 주관적으로 극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성분도 XP로 쓰일 수 있다. 극단적인 성분을 발화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극단 초점 구문’으로 인해 강조의 의미도 함께 나타난다.

화자의 주관에 따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성분 XP라도 최소치를 나타내거나 최대치를 나타낼 수 있다.

(53) a. 他连小学都没读.

그는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않았다.

b. 他连博士都没读.

그는 박사조차 다니지 않았다.

화자는 상황에 따라 (53a), (53b)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가 초등학교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53a)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화자가 그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53b)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즉 화자는 대상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문맥을 참고하여 ‘극단 초점 구문’을 발화하기 때문에 같은 XP라도 주관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가 최소치 혹은 최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화자가 생각하기에 박사학위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53b)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으나, ‘그’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가나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상황에는 (53b)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없다. 즉 전자의 상황에서 ‘博士’는 화자가 생각하는 최소치이지만, 후자의 상황에서는 최대치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에 따라 같은 XP성분이어도 최소치와 최대치를 나타낼 수 있다. XP가 최소치와 최대치인 경우 모두 화자의 주관에서는 극단적인 성분이다.

(54) A: 这个戏大结局的时候了, 差不多整个新加坡没有人, 全部的士回家看电视.

이 드라마가 최종회할 때가 되어서, 싱가포르 전체에 사람이 거의 없으며, 모든 택시기사가 집에 가서 티비를 본다.

B: 出租车司机都回家了, 万人空巷.

택시기사가 모두 집에 가니, 길에 아무도 없네.

택시기사조차 집에 가니, 길에 아무도 없네.

(54B)의 ‘都’는 ‘모두’와 ‘조차’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중의성이 발생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出租车司机’에 강세가 부여되면 중의성이 사라진다.

(54')B: '出租车司机都回家了, 万人空巷.'

택시기사조차 집에 가니, 길에 아무도 없네.

3.2 '也'가 쓰인 극단 초점 구문

현대 중국어의 '也'자문은 다양한 구조와 의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也'가 '같음'의 의미를 나타내며 'XP+也+VP'의 구조를 띤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也'가 전제나 가설이 어떠한든 결과는 모두 똑같음을 나타내며, 'XP+也+VP'의 구조를 띤 경우이다. 세 번째는 '也'가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며 'XP+也+VP'의 구조를 이루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也'가 완곡한 어감을 나타내며 'XP+也+VP'의 구조를 띤다. 본고에서는 세 번째 유형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也'자문에서 '也'가 의미를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X+也'로써 '也'가 앞의 X를 가리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也+Y'로써 '也'가 뒤의 Y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X+也+Y'로써 '也'가 X와 Y를 가리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극단 초점 구문'의 '也'자문은 첫 번째 유형이며 '也'가 앞의 성분을 가리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55) 他水也不喝.

'也'자문은 강세를 부가하더라도 '그는 물도 마시지 않는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也'자문은 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56) 一口水也不喝.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았다.

(56)은 (55)와 주어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음’의 의미보다는 ‘극단’의 의미로 해석된다. ‘一口水’에 강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극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也’자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강세가 아닌 XP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都’자문과 ‘也’자문의 비교

朱德熙(2003), 喬石豪(2005) 등은 ‘連’자를 생략하여도 ‘都’와 ‘也’가 호환되어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喬石豪(2005)는 앞부분이 의미 중심이며 앞부분에 강세가 있는 경우 ‘連’자를 생략하여도 ‘都/也’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朱德熙는 XP가 명사, ‘수량구+명사(수량은 ‘一’로 국한된다)’, ‘동량구/동사’일 때 都와 也가 조차의 의미로 호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7) a. 他头也不抬, 专心学习.
그는 머리조차 들지 않고, 공부에 몰두했다.
- b. 他头也不抬.
그는 머리도 들지 않았다.
그는 머리조차 들지 않았다.
- c. 他头都不抬.
그는 머리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57a)의 예문을 제시하여 ‘也’가 명사인 XP와 쓰일 경우 조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都와 호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57a)의 후속절이 생략될 경우 (57b)와 같은 문장이 되는데, ‘也’는 중의성을 띠며, 조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같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57c)와 같은 경우에는 ‘都’가 조차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57a)와 같은 예문에서 ‘也’가 조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문맥의 도움을 받아서이지 ‘也’의 의미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都’는 문맥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조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也’와 ‘都’가 조차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호환된다는 견해에는 모순이 따른다.

(58) a. 一天假也没请过.

하루의 휴가조차 신청한 적이 없다.

b. 树叶一动也不动.

나뭇잎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都’자문과 ‘也’자문은 모두 ‘극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두 구문이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는 각자 다른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都’자문은 강세에 영향을 받으며, ‘也’는 XP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의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 CCL의 예문 500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수치를 얻게 되었다.

都		
성분	극단O	극단X
명사구	94%	6%
맨명사	94%	6%
고유명사	100%	0
인칭대명사	100%	0
재귀대명사	100%	0
동사	100%	0
동사구	100%	0
문장	100%	0
총수량	475	25

〈표3-1〉 ‘都’자문 XP 분석

‘连...都’구문에서 ‘连’자를 생략할 경우 93%의 ‘都’자문이 ‘극단 초점 구문’

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7%의 ‘都’자문은 ‘극단 초점 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连…都’구문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都’자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XP가 ‘양사+N’의 구조이기 때문에 ‘一’가 부가되어야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경우에는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都’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 (59) a. *第二年临死时候个棺材都没有一辈子.
b. *当时就觉得某些人个12岁的小孩都不如.

XP의 길이가 길어서 초점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都’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 (60) a. 大公共、小公共、出租车、私家车、公车、拉货的汽车都逃不掉被检查.
대형버스, 소형버스, 택시, 자가용차, 관용차, 짐차조차도 검사를 피할 수 없다.
b. 一些不识字的老人、儿童都能听懂.
글씨를 모르는 몇몇 노인과 아이들은 모두 알아듣는다.

XP가 총칭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都’의 의미가 모두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都’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 (61) a. 不但文字是多余的, 语言都并不是传达情意的唯一象征体系.
문자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언어는 모두 감정을 전달하는 단 하나의 상징적 체계가 아니다.
b. 现有两家交易所的业务能力都没有充分利用, 没有必要再增设其他

证券交易所.

현재 거래소 두 곳의 업무능력이 모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거래소를 증설할 필요는 없다.

也		
성분	극단O	극단X
명사구	43%	57%
맨명사	38%	62%
고유명사	0	100%
인칭대명사	50%	50%
재귀대명사	67%	33%
동사	67%	33%
동사구	75%	25%
문장	67%	33%
총수량	215	285

〈표3-2〉 ‘也’자문 XP 분석

‘连…也’구문에서 ‘连’자를 생략할 경우 47%의 ‘也’자문이 ‘连…也’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53%의 ‘也’자문은 ‘连…也’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连…也’구문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也’자문의 경우 ‘也’는 ‘같음’의 의미를 띤다. ‘连…也’구문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也’자문의 경우 XP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甚至’, ‘就’와 같은 성분으로 인해 ‘连…也’구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也’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 (62) a. 他们并不能立即将该字的认识带入新词, 甚至该汉字也一时认不出来了.

그들은 이 자에 대한 이해를 바로 새로운 단어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이 한자조차 잠시 알아내지 못했다.

- b. 历史如果是夸夸其谈, 就欣赏的价值也没有了.

역사가 만일 터무니없이 과장된다면, 감상할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XP가 극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也’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 (63) a. 中国的线装书我几乎读遍了, 对于中国文化我探过底的, 这点我的敌人徐复观也不能不承认.

나는 중국의 선장본을 거의 다 읽었고, 나는 중국 문화에 대해 끝까지 찾아보았는데, 이 점은 나의 적인 徐复观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b. 虽然有了这枚秘密武器, 可最终还是没有考上电影学院, 我“一试”也没有通过, 就被刷了下来.

비록 비밀 무기를 얻게 되었지만, 나는 최종적으로 영화학원에 합격하지 못했다. 나는 한 번의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시험에 떨어졌다.

XP가 동사인 경우에는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也’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也’자문에서 XP가 동사인 경우는 ‘连’자를 생략하더라도 ‘连…也’구문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XP로는 명사만 쓰일 수 있었지만 ‘극단 초점 구문’이 문법화 되어가면서 동사도 쓰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XP가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连’자를 생략하여도 ‘连…也’구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也’가 ‘같음’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也’앞의 성분으로 명사만 올 수 있고 동사까지는 범위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즉 ‘也’앞의 성분으로 동사가 올 경우 ‘也’가 ‘같음’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4) a. 我看也没看见过.

나는 보지도 못했다.

- b. 这二十几年来, 我给很多影迷签过很多名字, 我数也数不出来.

이 20년 동안, 나는 많은 영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었는데,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

문맥으로 인해 XP가 극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也’구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65) a. 不用说买速度更快的船了, 炮弹也缺乏.

속도가 더 빠른 배를 사야한다는 말을 하지마라, 폭탄도 부족하다.

b. 在中国它的确是一个名牌了, 但在世界上恐怕名牌的小老弟也算不上.

중국에서는 확실히 명품이지만, 세계에서는 아마 명품의 막내로
조차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连’자를 생략할 경우 ‘都’자문과 ‘也’자문에서는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본고에서는 XP와 ‘也’자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모어 화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강세가 XP에 있을 때, ‘都’자문과 ‘也’자문이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¹⁰⁾

예문	극단	예문	극단
‘他都不认识.	0.91	‘他也不认识.	0.73
你‘他都不认得?	1	你‘他也不认得?	1
他是你爹的管账, 叫何不周.		他是你爹的管账, 叫何不周.	
‘这个都不认识.	0.91	‘这个也不认识.	0.73
你要是‘这个都干不了.	1	你要是‘这个也干不了.	1
那就请你走吧.		那就请你走吧.	
‘这个都可以造假,	1	‘这个也可以造假,	1
那么我们供奉的婚姻啊,		那么我们供奉的婚姻啊,	
还有什么是真的?		还有什么是真的?	
‘饭都不吃.	1	‘饭也不吃.	0.82
‘一口水都不喝.	1	‘一口水也不喝.	1

〈표3-3〉 ‘都’자문과 ‘也’자문의 ‘극단’ 의미 여부

10) 본고는 ‘都’자문과 ‘也’자문이 XP에 강세가 있을 때,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어 화자 43명을 조사해보았다. 화자에 따라 의미에 대한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조사의 결과를 통해 방향성을 찾아 낼 수 있었고, 연구의 소재로 참고하게 되었다.

- (66) a. '他都不认识.
 그조차 모른다.
 b. '他也不认识.
 그도 모른다.
 그조차 모른다.

(66a)는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66b)는 중의성을 띠어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도 한다.

- (67) a. 你‘他’都不认得? 他是你爹的管账, 叫何不周.
 b. 你‘他’也不认得? 他是你爹的管账, 叫何不周.

(67)에서는 ‘너는 그조차 모르니? 그는 너의 아버지의 회계사인 何不周야.’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그는 ‘너’가 당연히 알아야 할 사람이라는 문맥이 존재하여 ‘그’가 극단적인 성분을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也’자문은 ‘都’자문과 같이 ‘극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67)의 XP는 ‘他’로 동일하지만, (67a)는 XP에 상관없이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67b)는 문맥에 의거하여 XP가 극단적인 성분일 때 ‘극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8) a. '这个都不认识.
 이것조차 모른다.
 b. '这个也不认识.
 이것도 모른다.
 이것조차 모른다.
(69) c. '这个都可以造假, 那么我们供奉的婚姻啊, 还有什么是真的?
 d. '这个也可以造假, 那么我们供奉的婚姻啊, 还有什么是真的?

(68a)에서는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며, (68b)에서는 중의성을 띤다. (69)에서는 ‘이것조차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중한 결혼에서 대체 무엇이 진짜입니까?’라는 의미로 ‘이것조차 거짓이면 다른 것은 진짜일 가능성이 적다’는 극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这个’가 극단적인 성분임을 나타내는 문맥이 존재하며, 이 경우 ‘也’자문이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都’자문과 ‘也’자문은 ‘극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두 구문의 체계가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都’와 ‘也’의 기본의미는 각각 ‘총괄’과 ‘같음’이다. 본고에서는 ‘都’가 여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생성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也’는 ‘같음’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생성한다. ‘也’를 통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생성함으로써 척도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지만 ‘都’와 ‘也’가 ‘連’자와 함께 쓰여 구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王玉麗(2008)는 ‘都’와 ‘也’가 앞의 성분을 의미 가리킨다고 하였으며 ‘都’와 ‘也’가 부사어로 쓰이지만 수식하는 성분은 술어가 아닌 주어라고 하였다. ‘連…都’구문과 ‘連…也’구문은 XP와 관련된 여러 대상을 포함하는 집합을 통해 척도를 생성함으로써 구문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의 성분을 의미 지향하는 ‘都’와 ‘也’는 ‘連…都’구문과 ‘連…也’구문에 쓰이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극단 초점 구문’은 문장의 성분들이 나타내는 의미 외에도 화용적인 요소로 인해 부가적인 의미가 나타나며 구문이 화자와 청자의 인지와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극단 초점 구문’의 화용적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극단 초점 구문’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보구조는 대화자의 심리 상태가 어휘 문법적 구조에 반영되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으로써, 화자의 인지가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심리 상태로 인해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4.1 화제와 초점의 개념 설정

기존의 여러 정보구조 연구에서는 구정보와 신정보의 기준으로 정보구조를 분석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구정보인 성분은 화제, 신정보인 성분은 초점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실제 담화를 살펴보면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도 초점이 될 수 있고, 모르는 정보일지라도 화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4.2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또한, 화제, 초점, 강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학자마다 정보구조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름으로 인해 정보구조 연구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Lambrecht(1994)의 정보구조의 이론과 화제 및 초점의 특징에 입각하여 ‘극단 초점 구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학자마다 화제와 초점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사

용하는 화제와 초점의 개념에 대해 먼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Lambrecht는 문장의 화제는 그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대하는(is about) 실체라고 하며 화제의 대하여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화제는 ‘현재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문제’이며, 명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였다. 화제를 판단할 때는 문장의 담화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70) 孩子们去学校了.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70)에서 ‘孩子们’이 문장의 화제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으로 표현된 명제가 화용적으로 ‘孩子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孩子们’이 ‘현재의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문제’일 경우 화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문장은 ‘孩子们’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孩子们’을 화제로 볼 수 있다.

Lambrecht에 의하면 초점은 화용적 전제에 덧붙은 정보 요소이며 초점은 단언과 일치하지 않는 단언의 일부라고 하였다. 즉 초점은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¹¹⁾와 화용적 단언(pragmatic assertion)¹²⁾을 구분해주는 정보적 요소이다.

또한, 초점은 발화 시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명제의 부분이며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한 또는 화용적으로 회복 불가능한(nonrecoverable) 요소이다.

11) 화용적 전제는 문장이 발화될 때 화자가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이다.

12) 화용적 단언은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이다.

(71) A: 你昨天晚上去哪儿了?

너 어제 저녁에 어디에 갔었니?

B: 我去电影院了.

나는 영화관에 갔었어.

(71)에서 대답에 의해 전달된 정보는 추상적인 명제 ‘我昨天晚上去的地方是电影院’이다. ‘电影院’이라는 표현 혹은 그 외연의미가 (71)의 초점이고 ‘电影院’이 부가되어 문장을 신정보로 만드는 것이다. Lambrecht는 외연의미와 명제 사이의 이러한 화용적 관계가 초점 관계라고 하였다. 이러한 초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청자의 마음에 정보라는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 표시의 기능은 구성성분을 새로운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 관계를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72) A: 你昨天晚上去哪儿了, 电影院还是餐厅?

어제 저녁에 영화관과 레스토랑 중에 어디에 갔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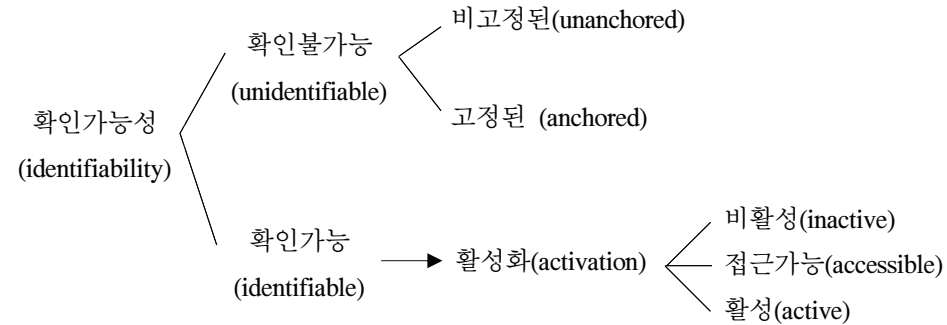
B: 我去餐厅了.

나는 레스토랑에 갔었어.

(72)의 대답에서 명사구 ‘餐厅’은 앞의 질문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구정보이다. 많은 학자들이 구정보를 화제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72B)에서 ‘餐厅’의 외연의미가 열린 명제(open proposition) ‘说话者去的地方是x’에서 빠진 논항을 채우고 이러한 관계적 의미 때문에 ‘예측불가능’ 혹은 ‘회복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활성화(active)된 구정보일지라도 ‘餐厅’을 초점으로 볼 수 있다. 즉 ‘餐厅’이 부가됨으로써 문장을 신정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餐厅’을 초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Lambrecht에 의하면 신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강세가 있는 구성성분 자체가 아니라 이 구성성분의 외연의미와 추상적인 명제 사이의 관계 설정이다. 따라서 그는 화제와 초점을 판단할 때 확인가능성과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고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표를 제시하였다.



〈그림4-1〉 확인가능성 체계

위의 표에 의하면 확인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때, 확인가능한 성분과 확인 불가능한 성분으로 나눈 뒤 확인가능한 성분인 경우에는 활성화 여부를 통해 또 다시 분류를 한 것이다. 보편적으로는 확인가능성이 높을수록 화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활성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화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화제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가능성이 높은 성분이어도 초점이 될 수 있고, 확인가능성이 낮은 성분이어도 화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성분이어도 초점이 될 수 있고, 모르는 성분이어도 화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73) A: 谁得参加这次会议?

이번 회의에는 누가 참석해야 하지?

B: 你和我.

너와 나야.

(73)에서 B의 대답에 있는 ‘你’와 ‘我’는 확인가능한 성분이다. ‘你’와 ‘我’는 이 발화에 참여하고 있는 청자와 화자 A와 B 각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你’와 ‘我’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B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你和我’의 부가로 인해 B의 발화가 청자에게 신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B를 발화의 초점으로 볼 수 있다(화제와 초점의 구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따라서 확인가능성이 높은 성분이어도 충분히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에서 B의 발화 ‘你和我’의 완전한 문장은 ‘你和我得参加这次会议.’이다.

Lambrecht는 초점을 명제의 상이한 종류에 대응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는 초점 구조의 유형을 서술어 초점(대화의 주어진 화제에 대한 평언의 기능), 논항 초점(지시체를 확인하는 기능)과 문장 초점(사건을 보고 하거나 새로운 담화 지시체를 제시하는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74) 서술어-초점 구조

A: 你的车, 昨天发生什么事了? 昨天你的车发生什么事了?

너의 차에 무슨 일이 있었니? 어제 너의 차에 무슨 문제 있었니?

B: 我的车坏了.

내 차는/그 것은 고장 났었어.

(75) 논항-초점 구조

A: 我听说你的摩托车坏了?

너의 오토바이가 고장 났었다고 들었는데?

B: 我的车坏了.

내 차가 고장 났었어.

(76) 문장-초점 구조

A: 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야?

B: 我的车坏了.

내 차가 고장 났었어.

(74)의 서술어-초점 구조에서 응답에 의해 환기된 전제는 ‘说话者的车’이다. 초점은 ‘坏了’이고 강세를 지닌다. (75)의 논항-초점 구조의 응답에서 환기된 전제는 ‘属于说话者的某个东西坏了’이다. 단언은 ‘那是说话者的车’이며 초점은 ‘车’이고 강세를 지닌다. (76)의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어떤 화용적 전제도 형식적으로 유발되지 않으며 전제가 결여된다. 단언이 전체 명제로 확대되므로, 단언과 초점은 이 구조에서 일치한다. 그는 세 가지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을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냈다.

	초점에 있는 논항	초점에 있는 서술어
서술어 초점	-	+
논항 초점	+	-
문장 초점	+	+

〈표4-1〉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

본고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화제 및 초점 등에 대한 개념을 통해 ‘극단 초점 구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4.2 XP의 정보성

많은 학자들은 정보를 신정보와 구정보로 분류한다. Lambrecht(1994)에 의하면, 구정보는 문장의 성분이며, 특히 주어처럼 화자와 청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대화에서 언급되었거나 언급된 요소를 통해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정보는 문장의 성분이며, 특히 술어처럼 화자와 청자가 알 수 없거나 추론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극단 초점 구문’은 화자의 인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문맥을 참고할 수 있는 CUC에서 ‘극단 초점 구문’이 포함된 500개의 담화를 추출하여 구정보와 신정보의 출현빈도를 알아보았다.

‘극단 초점 구문 중’의 하나인 ‘都’자문은 총괄의 의미를 나타내는 ‘都’자

문의 예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連…都’구문과 ‘都’자문은 ‘連’자의 유무와 강세를 제외하고는 구문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극단 초점 구문’만을 나타내는 ‘連…都’구문을 중점으로 분석할 것이다. 분석된 예문은 모두 실제 대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 (77) A: 我跟他在同一个村里面, 可以说是穿短裤一起长大的人.
나는 그와 같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같이 반바지 입고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 B: 穿短裤长大的人?
반바지 입고 자란 사람?
- A: 对.
맞아.
- B: 看来你俩关系还不行. 关系铁的连短裤都不穿.
보아하니 너희 둘 사이 안 되겠네. 친한 사이끼리는 반바지도 안 입어.

(77)에서 XP인 ‘短裤’는 언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구정보이다.

- (78) A: 你知道美国有一个传媒被玩的一塌糊涂, 气球.
너 미국에서 한 매체가 엉망진창 된 사건 아니, 열기구 때문에.
- B: 热气球那小孩的一家人.
열기구랑 그 아이하고 가족 말이지.
- A: 把美国各大电视台, 连总统的新闻都停掉, 全部追踪拍一个气球, 最后停下什么都没有, 结果是一个人自我表演.
미국 방송국에서 대통령의 뉴스까지 중지시키고 전부 열기구를 촬영하러 쫓아갔는데, 나중에 멈추고 보니 아무 것도 없었어,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 꾸민 일더라.

(78)에서 XP인 ‘总统的新闻’은 언급되지 않았고 청자와 화자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정보이다.

CUC에서 추출한 500개의 담화에서 구정보인 XP는 260번, 신정보인 XP는 240번 출현하였다. 구정보 및 신정보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구정보	신정보
출현빈도	0.52	0.48

〈표4-2〉 구정보 및 신정보 출현빈도

500개의 담화를 분석해본 결과, XP에서 구정보와 신정보가 출현하는 빈도는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고에서는 XP를 단어의 품사로 분류한 뒤 구정보와 신정보의 출현빈도를 다시 한 번 분석해보았다. 아래의 표를 보자.

XP	구정보 출현빈도	신정보 출현빈도
맨명사 (35번)	0.62	0.38
명사구 (38번)	0.42	0.58
고유명사(8번)	0.62	0.38
인칭대명사 (3번)	0.33	0.67
지시대명사 (3번)	1.00	0
동사 (6번)	0.83	0.17
동사구 (5번)	0.20	0.80
단문 (2번)	0	1.00

〈표4-3〉 XP 품사 유형별 구정보 및 신정보 출현빈도

지시대명사와 단문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구정보 및 신정보를 모두 나타낼 수 있으며 나타나는 빈도 또한 비슷하다. 지시대명사는 앞에 언급했던 성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분석을 통해 하나의 담화에서 XP가 각각 구정보와 신정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79) A: 大老远的自己跑到北京来, 爱人什么想法?

멀리서 혼자 북경에 왔는데, 애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B: 爱人刚开始不同意, 就想到他们原来也是一个普普通通的人嘛, 那些明星们很多当年到北京来的时候连_i拉二胡都不会拉呢, 人都成明星了.

애인이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생각해보니 그들도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스타들이 그 당시 북경에 왔을 때 이호도 연주 못했는데, 스타가 되었잖아요.

...

A: 往家打电话了吗?

집으로 전화 했었나요?

B: 没有, 没有打.

아니요, 전화 안했어요.

A: 连₂电话都不打?

전화도 안했어요?

(79)에서 ‘XP₁’인 ‘拉二胡’는 신정보이며, ‘XP₂’인 ‘电话’는 구정보이다.

(80) A: 刚开始的时候, 你去了之后就有机会表演吗?

막 시작했을 때, 가고 나서 공연할 기회가 있었나요?

B: 没有, 刚开始的时候, 看不起你中国人.

아니요, 막 시작했을 때는 중국인을 무시했어요.

A: 为什么?

왜죠?

B: 因为呀, 他们这个地方, 都是鳄鱼表演的, 人家从内心里头不高兴.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곳에서 모두 악어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맘속으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A: 人家甚至都是祖传的.

그 사람들은 심지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니까요.

B: 人家表演鳄鱼的, 连₁动都不让你动, 摸都不让你摸.

악어공연을 하는 그 사람들이 건들지도 못 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 하게 했어요.

A: 那你去了干什么呢?

그럼 당신은 무얼 했나요?

B: 就是一开始, 给人打扫打扫, 卫生.

처음에는 청소했어요.

A: 打打杂?

심부름?

B: 刷刷池子, 我去了一个星期, 给人刷了两回池子.

욕조 닦았어요. 간지 일주일 만에 욕조를 두 번 닦았어요.

A: 一个星期都没摸上鳄鱼.

일주일동안 악어를 만져보지 못했군요.

B: 连₂摸都不让你摸.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 예문에서, ‘XP₁’인 ‘动’은 신정보이며, ‘XP₂’인 ‘摸’는 구정보이다.

한 문맥에서 몇 개의 XP는 각각 구정보와 신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기준으로 ‘극단 초점 구문’을 분석한다면, XP는 화제가 될 수도 있고, 초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극단 초점 구문’ 연구들이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기준으로 분석을 해왔지만 앞에서 언급되었던 성분이어도 초점이 될 수 있고, 언급되지 않았던 성분이라도 화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정보와 신정보의 기준으로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를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4.1에서 언급된 화제 및 초점 등의 개념을 통해 XP를 분석할 것이다.

4.3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

‘극단 초점 구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화자는 **XP** 이외의 성분이 **VP**가 진술하는 내용을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극단 초점 구문’의 단언은 바로 이러한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극단 초점 구문’에는 함축적인 성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언은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즉 **XP**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성분은 **VP**가 진술하는 내용을 만족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에 대해 분석해보자.

(81) ...

A: 真是从鼻子里出来的?

정말로 코로 내는 소리 인가요?

B: 的确是从鼻子里出来的!

정말로 코로 내는 겁니다!

A: 我能摸摸你鼻子吗?

코 좀 만져봐도 될까요?

B: 可以可以.

됩니다.

A: 纯肉的喷呐鼻子! 在哪买的? 在老家买的是吧? 有没有卖那个小号鼻子的? 能吹出小号的声音来的.

코에 살만 있네요! 어디서 샀나요? 고향에서 산거죠? 트럼펫 코는 안 파나요? 트럼펫 소리 낼 수 있는 거요.

B: 小号的功能也有.

트럼펫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A: 连这个业务能力都有? 来段小号. 一听这个, 就有一种要结婚的冲动啊.

이런 능력도 있나요? 트럼펫 소리 좀 내주세요. 듣자마자 결혼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 같네요.

...

(81)은 ‘B는 코로 태평소 소리를 낼 수 있으며 《抬花轿》도 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가 ‘극단 초점 구문’을 발화하기 전 A의 의식 속에는 ‘B가 코로 태평소 소리를 내는 것은 생각지 못한 것, 놀라운 것이며 B가 코로 태평소 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A가 ‘극단 초점 구문’을 발화할 때의 전제를 ‘B는 이러한 능력(코로 태평소 소리를 내는 것)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로 볼 수 있다. A는 ‘극단 초점 구문’을 발화함으로써 자신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즉 B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XP인 ‘这个业务能力’에는 강세가 있다. ‘극단 초점 구문’에는 대안집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B는 태평소 소리보다 더 쉽게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와 같은 부가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82) A: 你知道美国有一个传媒被玩的一塌糊涂, 气球.

너 미국에서 방송국이 엉망진창 된 일 아니, 열기구말야.

B: 热气球那小孩的一家人.

그 아이의 가족이랑 열기구말이지.

A: 把美国各大电视台, 连总统的新闻都停掉, 全部追踪拍一个气球, 最后停下什么都没有, 结果是一个人自我表演.

미국 방송국에서 대통령의 뉴스까지 중지시키고, 전부 열기구 촬영하러 쫓아갔는데, 나중에 멈추고 보니 아무 것도 없었어, 알고 보니 한 사람이 꾸민 일더라.

(82)는 앞에서 언급한 예문이다. (82)에서는 A와 B가 ‘미국의 방송국에서 열기구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대통령의 뉴스를 중지한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해당 예문에서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를 ‘대통령의 뉴스 이외의 프로그램을 중지했다’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뉴스보다 중지 할 가능성이 더 큰 프로그램을 중지했다’라는 부가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XP인 ‘总统的新闻’에는 강세가 있다.

蔡维天(2015)은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는 Horn의 ‘even’에 대한 연구를 방법론으로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Horn은 ‘even’구문의 단언을 기본 명제로 보고 전제를 초점의 대안집합을 내포하는 명제로 보았다.

(83) Even ($x = a, F(x)$)

Presupposition: $(\exists y) (y \neq x \ \& \ F(y))$

Assertion: $F(x)$

(84) Akiu even drinks red wine.

아큐는 레드 와인도 마신다.

a. Presupposition: $(\exists y) (y \neq \text{red wine} \ \& \ \text{drink}(\text{Akiu}, y))$

b. Assertion: $\text{drink}(\text{Akiu}, \text{red wine})$

(84)의 전제는 ‘Akiu drinks something other than red wine’이며, 단언은 ‘Akiu drinks red wine’이다.

(85) 阿Q连红酒都喝.

아큐는 레드와인도 마신다.

a. 전제: 阿Q喝红酒以外的酒.

아큐는 레드와인 이외의 것을 마신다.

b. 단언: 阿Q喝红酒.

아큐는 레드와인을 마신다.

蔡维天은 (85)의 ‘连…都’구문의 단언은 기본명제 ‘阿Q喝红酒’이며, 전제는 ‘红酒以外的酒’를 내포하는 명제 즉 ‘阿Q喝红酒以外的酒’라고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설정한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는 그가 제시한 ‘连…都’구문의 전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Lambrecht(1994)에 의하면, 초점은 화용적 전제에 부가된 정보적 요소이며, 초점은 화용적 전제와 화용적 단언을 구분해주는 정보적 요소이다. (85)의 예문에서 단언과 전제를 구분해주는 성분은 ‘红酒’이다. 따라서 ‘红酒’를 초점으로 볼 수 있다.

4.4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 분석

본고에서는 화제와 초점의 특징으로 XP의 정보구조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초점은 예측불가능하며 강세를 지니고 뒤에 휴지사를 놓을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극단 초점 구문’의 XP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CCL의 ‘连…都’구문을 중심으로 예문을 분석하였다.

단언과 전제를 구분하는 것은 초점 특유의 특징이다. 위에서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를 살펴봄으로써 XP는 전제와 초점을 구분하는 화용적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XP는 예측불가능하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예문이다.

(86) 阿Q连红酒都喝.

아큐는 레드와인도 마신다.

a. 전제: 阿Q喝红酒以外的酒.

아큐는 레드와인 이외의 것을 마신다.

b. 단언: 阿Q喝红酒.

아큐는 레드와인을 마신다.

(86)에서 단언과 전제를 구분하는 성분은 ‘红酒’이다. ‘红酒’는 전제와 다른 발화시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성분이기 때문에 ‘红酒’를 초점으로 볼 수 있다.

XP가 위의 예문과 동일한 성분인 ‘红酒’일지라도 다른 문맥에서 ‘극단 초점 구문’은 부정문으로 쓰일 수 있다. ‘극단 초점 구문’이 부정문의 경우 전제와 단언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7) 阿Q连红酒都不喝.

아큐는 레드와인도 마신다.

a. 전제: 阿Q不喝红酒以外的酒.

아큐는 레드와인 이외의 것을 마시지 않는다.

b. 단언: 阿Q不喝红酒.

아큐는 레드와인을 마시지 않는다.

(87)의 발화를 할 때 화자와 청자는 ‘阿Q’가 레드와인 이외의 것을 마신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틀렸음을 ‘극단 초점 구문’의 발화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87)의 예문에서 화자와 청자는 ‘阿Q’가 레드와인 이외의 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문맥 하에 ‘극단 초점 구문’을 발화한 것이다. ‘극단 초점 구문’이 긍정문 혹은 부정문에 쓰이더라도 XP가 전제와 단언을 구분해주는 성분이라는 점은 같다.

많은 연구에서는 휴지사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은 화제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劉丹青(2015)은 중국어의 휴지사 즉 ‘啊, 么, 呢, 吧’ 등은 화제표지의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중국어에서 화제가 반드시 화제표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화제에는 화제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88) a. 看来你俩关系还不行. 关系铁的连短裤(*啊/*么)都不穿.

보아하니 너희 둘 사이 안 되겠네. 친한 사이에는 반바지도 안 입어.

- b. 把美国各大电视台, 连总统的新闻(*啊/*么)都停掉, 全部追踪拍一个气球, 最后停下什么都没有, 结果是一个人自我表演.

미국 방송국에서 대통령의 뉴스까지 중지시키고, 전부 열기구 촬영하러 쫓아갔는데, 나중에 멈추고 보니 아무 것도 없었어, 알고 보니 한 사람이 꾸민 일더라.

- c. 阿Q连红酒(*啊/*么)都喝.

아큐는 레드와인도 마신다.

(88)은 앞에서 모두 언급했던 예문이다. XP 뒤에 휴지사를 부가할 경우 문장은 비문법적이게 된다. 코퍼스에서는 XP에 휴지사가 오는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화제 뒤에 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제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XP 뒤에는 휴지를 할 수 없다.

- (89) a. *看来你俩关系还不行. 关系铁的连短裤, 都不穿.

- b. *把美国各大电视台, 连总统的新闻, 都停掉, 全部追踪拍一个气球, 最后停下什么都没有, 结果是一个人自我表演.

- c. *阿Q连红酒, 都喝.

刘丹青은 주어가 최소치를 나타내는 성분인 부정문에서 주어는 화제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张斌(2010)의 견해를 인용하여 ‘-+양사(명사)+동사’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부정형이며, 부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조의 ‘-’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하였다. ‘车子一辆也没有’와 같은 문장에서 ‘车子’는 화제이고, 주어는 ‘一辆’이며, 이 문장은 ‘一辆车子也没有’와 같이 발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유형의 주어는 화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뒤에 휴지사를 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一个么也不敢动’, ‘*一口饭啊都没吃’와 같은 예문은 비문이다. NP가 최소치를 나타내는 성분 뒤에 부가될 경우 NP에는 휴지사를 부가할

수 없다.

‘극단 초점 구문’은 다음의 예문과 같이 최소치를 나타내는 성분이 부정문에 쓰여 보편성을 나타낸다.

(90) a. 我连一个字都不认识.

나는 한 글자도 모른다.

b. 我连一口饭都没吃.

나는 밥 한입도 먹지 못했다.

(90)의 예문의 XP 뒤에도 휴지사를 부가할 수 없다.

(90')a. *我连一个字(*啊/*呀)都不认识.

b. *我连一口饭(*啊/*呀)都没吃.

따라서 XP는 화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제는 생략될 수 있다. LaPolla(1995)는 Lambrecht(1989)의 견해를 인용하여 ‘단언은 전제(및 화제)와 초점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화제는 전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화되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에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화 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91) A: 你的车怎么了?

너의 차에 무슨 일이 있었니?

B: 我的车坏了.

내 차는 고장 났었어.

B': 坏了.

고장 났었어.

(91A)의 대답인 (91B)와 (91B')는 모두 문법적이다.

그러나 XP는 일반적으로 생략되지 않는다. 周士宏(2009)은 XP를 화제라고 제시하였다. 그는 어떠한 문맥에서도 VP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극단 초점 구문’의 의미 중심이라고 하였으며 ‘连’자 앞의 성분과 XP가 모두 생략될 수 있다고 하였다.¹³⁾ 그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92) a. 我(连)鸵鸟肉都吃过.

나는 타조고기도 먹어 봤어.

b. (连)鸵鸟肉都吃过.

타조고기도 먹어 봤어.

c. *我连鸵鸟肉.

d. *(连)鸵鸟肉.

e. 我都吃过.

나는 다 먹어봤어.

나도 먹어봤어.

그는 XP가 진술하는 부분은 생략될 수 없기 때문에 (92c)와 (92d)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92c)와 (92d)는 본래 비문법적이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는 것이다. (92a)와 (92b)의 ‘都’는 (92e)의 ‘都’와 나타내는 의미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92a)와 (92b)의 ‘都’는 ‘조차’, (92e)의 ‘都’는 ‘조차’ 혹은 ‘모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맥을 통해 (92a)와 (92e)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3) A: 你吃过鸵鸟肉和蛇肉吗?

너 타조고기랑 뱀고기 먹어 봤니?

13) 周士宏(2009) p.150 참조.

B: *我(连)鸵鸟肉都吃过.

B': 我都吃过.

나는 다 먹어봤어.

나도 먹어봤어.

이 예문에서 (93A)의 대답은 (93B')만 가능하며 (93B)는 불가능하다.

(94) A: 你能吃生鱼片吗?

너 회 먹을 수 있니?

B: 我连生老鼠都能吃.

나는 쥐고기도 먹어 봤어.

B': *我都能吃.

나는 다 먹어봤어.

나도 먹어봤어.

(94)에서 (94A)의 대답은 (94B)만 가능하며 (94B')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93a)와 (94e)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P는 생략될 수 없고, 화제가 될 수 없다.

刘丹青은 의문대사 주어 혹은 의문대사의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점이 라고 제시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95) A: '谁是张明?

누가 장밍이야?

B: '我是张明.

내가 장밍이야.

C: (是)'我.

나야.

D: 我(*啊/*么)是张明.

내가 장밍이야.

그는 의문대사의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초점이라고 하였는데, 즉 (95)에서는 ‘我’에 해당하는 부분이 초점이다. 즉 XP는 의문대사의 대답이 될 수 있다.

(96) A: 你能为我们公司做什么?

우리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B: (都能做,)我连端茶倒水都能做.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96)의 전제는 ‘나는 회사를 위해 물을 붓고 차를 내오는 일(端茶倒水, 한국에서의 ‘커피를 타오는 일’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보통 직장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가리킨다.)의외의 일을 할 수 있다’이며 단언은 이러한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극단 초점 구문’을 통해 ‘물을 붓고 차를 내오는 일(가장 내키지 않는 업무)보다 할 가능성이 더 큰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부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97) A: 这次同学聚会谁来了?

이번 동창회 누가 왔었어?

B: (都来了,)连老师都来了.

(다 왔어,) 선생님도 오셨어.

(97)의 전제는 ‘선생님 이외의 사람이 왔다’는 것이며 단언은 이러한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극단 초점 구문’에서는 ‘선생님보다 올 가능성이 큰 사람은 왔다’라는 부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XP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P를 초점으로 볼 수 있다.

- (98) a. XP는 전제와 단언을 구분해주는 화용적 성분이다.
b. XP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c. XP뒤에는 휴지사를 부가할 수 없으며, 휴지를 할 수 없다.
d. XP는 최소치를 나타내는 성분으로써 부정문에 쓰일 수 있다.
e. XP는 생략될 수 없다.
f. XP는 의문대사의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쓰일 수 있다.

XP의 의미는 ‘连’자 혹은 강세로 실현된다. 박정구(2015)는 중국어에서 일부 부사는 어순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정보구조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강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정보구조를 문법구조와 형태로 분석할 때 운율은 보조적인 수단이지만 문법구조나 형태로 분석할 수 없을 때 운율은 정보구조를 분석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 (99) a. 我都[F 忘了]你的名字了.
나는 너의 이름조차 잊어버렸다.
b. [F 我]都忘了你的名字了.
나도 너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c. 连我都忘了你的名字了.
나조차 너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는 ‘都’가 조차의 의미를 나타낼 때, (99a)와 같은 무표지 구조에서는 ‘忘了你的名字了’가 초점이라고 하였다. (99b)를 운율로 분석할 경우 ‘我’는 초점이며, (99c)의 초점은 ‘我’라고 하였다.

무표지인 문장에서는 중의성을 떨 수 있기 때문에 초점부분에는 반드시 강세를 부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连’이라는 표지를 부가할 경우 강세가 ‘我’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我’가 초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강세가 ‘都’ 뒤의 성분에 있을 경우 ‘都’ 뒤의 성분은 예상 밖의 의미를 나

타내는 성분이며 문장은 서술어초점 구조이고, 강세가 ‘都’ 앞의 성분에 있을 경우 ‘都’ 앞의 부분이 예상 밖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며 문장은 논항 초점구조라고 하였다. ‘극단 초점 구문’에서 초점은 논항에 있는 것이지 술어에 있는 것이 아니며 XP가 의문대사의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극단 초점 구문’을 논항초점구조로 본다.

(99b), (99c)와 (99a)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전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9a)의 전제를 ‘나 이외의 사람이 너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로 볼 수 없고, ‘나보다 너의 이름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큰 사람도 너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것이다’라는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99a)의 ‘我’ 앞에 ‘连’자 혹은 ‘我’자에 강세를 부가하면 ‘我’는 초점이 되며 (99a)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전제가 나타나게 된다. ‘都’는 (99a), (99b)와 (99c)에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장들의 차이가 ‘都’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극단 초점 구문’은 ‘连’자 혹은 XP의 강세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都’자 앞의 성분이 복수 명사일 경우 중의성이 떠는 경우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

(100) a. 算了算了, 周处长您不会信的, 他们都不信.

됐어요. 쪼우처장님 당신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저들은 모두 안 믿거든요.

됐어요. 쪼우처장님 당신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저들도 안 믿거든요.

a'. 算了算了, 周处长您不会信的, 他们都'不信.

됐어요. 쪼우처장님 당신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저들은 모두 안 믿거든요.

a''. 算了算了, 周处长您不会信的, '他们都不信.

됐어요. 쪼우처장님 당신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저들도 안 믿거든요.

- b. 算了算了, 周处长您不会信的, 连他们都不信.

됐어요. 쪼우처장님 당신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저들도 안 믿거든요.

(100)예문에서 (100a)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강세가 ‘不信’에 있는 경우 ‘不信’이 초점이며 (100a’)와 같은 문장이 된다. 강세가 ‘他们’에 있을 경우 ‘他们’이 초점이며 (100a’’)와 같은 문장이 된다. (100a’)는 ‘都’가 ‘모두’와 ‘조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의성을 띠는 반면, (100b)는 중의성을 띠지 않는다. ‘连’자가 XP가 초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他们’이 초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连’자 혹은 XP의 강세는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连’자를 사용함으로써 초점영역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 (101) a. 如果连每日相见, 彼此接触, 与你住在一起的邻居都不爱的话, 那你怎么能爱一个看不见的上帝呢?

매일 만나고 교제하며 같이 살아가는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니?

- b. 在连大陆会议政府、十三个州政府自己都不知道未来靠什么收入来还债的情况下, ...

대륙회의정부, 십삼 개州政府 자신도 미래에 어디에서 수익을 얻어 빚을 갚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101)의 예문에서 ‘连’자를 생략할 경우 어느 부분까지가 초점인지를 판단해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连’자는 초점 영역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점 영역에 강세가 없더라도 화자와 청자는 ‘连’자로 인해 영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102) a. 这个都可以造假, 那么我们供奉的婚姻啊, 还有什么是真的?
 b. 这个也可以造假, 那么我们供奉的婚姻啊, 还有什么是真的?

(102)는 각각 ‘都’자문과 ‘也’자문이며, 모두 ‘이것조차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중한 결혼에서 대체 무엇이 진짜입니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예문에서의 XP는 (102)에서 언급했던 초점의 특징에 부합한다. 따라서 ‘극단 초점 구문’의 XP는 초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는 ‘连…都’와 ‘连…也’구문과 쓰이는 XP의 유형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보구조를 살펴보면 두 구문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连…都’구문은 다음과 같은 전제와 단언을 나타낸다.

- (103) a. 连你都不知道.
 전제: 너 이외의 사람이 모른다.
 단언: 너는 모른다.

‘连…也’구문에서는 단언은 같지만 전제는 다르다.

- (104) b. 连你也不知道
 전제: 어떤 사람(someone)이 모른다.
 단언: 너는 모른다.

‘连你都不知道’의 경우 ‘너조차 모른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화자의 인지에서는 ‘너 이외의 사람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전제가 틀렸고 ‘너는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连你也不知道’에서도 역시 ‘너조차 모른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화자는 ‘어떤 사람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만 너도 모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는 모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连…也’구문에서는 ‘같음’의 의미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郭春贵(1996)는 ‘连…都’구문은 가장 가능성이 적은 성분을 제시하여 같은 척도에 있는 대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고, ‘连…也’구문은 ‘같음’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며 가장 가능성이 적은 성분이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성분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05) 天天晚上看电视, 连广告都不放过.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며 광고조차 놓치지 않는다.

그는 (105)에서의 ‘连…都’구문으로 인해 ‘他’가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가장 보지 말아야 할 가장 볼 가능성이 적은 광고까지도 본다는 것을 나타내며, 광고를 본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볼 것이라는 내용을 함축한다고 하였다. ‘都’를 ‘也’로 바꿔 쓸 경우 ‘같음’을 강조하며 광고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광고를 보는 것을 ‘같음’로 설명하여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광고를 보는 것’이 가장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한 바로는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은 똑같이 ‘광고를 보는 것’이 가장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광고를 본다는 것으로 다른 티비 프로그램도 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连…也’구문도 ‘连…都’구문과 같이 극단을 나타내고 나타내는 함축적인 의미도 같지만 ‘连…也’구문은 ‘같음’의 의미가 남아있어 전제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都’와 ‘也’의 정보구조에서 XP는 초점이지만 둘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6) a. 张三都不知道.

전제: 张三 이외의 사람이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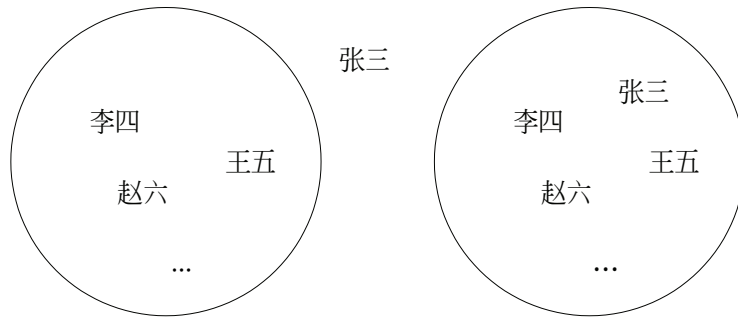
단언: 张三이 모른다.

b. 张三也不知道.

전제: 어떤 사람(someone)이 모른다.

단언: 张三이 모른다.

‘连…都’구문에서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都’구문과 같은 전제와 단언을 나타내지만 ‘连…也’에서 连자를 생략할 경우 ‘连…也’구문과는 다른 전제와 단언을 나타낸다. (106a)의 전제에서는 ‘张三’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06b)에서는 ‘张三’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이다. (106a)와 (106b)의 전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6a)의 전제에는 ‘张三’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화자의 전제에서 가능성이 있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张三’도 모른다는 발화를 함으로써 그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106b)의 전제에서는 ‘张三’이 가능성이 있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张三’이 모른다는 단언은 전제와 충돌되지 않는다.

‘극단 초점 구문’에서 XP가 VP 혹은 AP일 때 술어에 동사 복사가 출현할 경우 정보구조에는 예외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초점인 XP의 범위가 확장되어 전체 문장이 초점이 되는 것이다.

(107) a. 看都不看.

보지도 않는다.

b. 问都不问.

묻지도 않는다.

c. 连干都没干.

마르지도 않았다.

d. 连红都没红.

붉어지지도 않았다.

(107)에서는 전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술어로 쓰인 부분은 앞의 VP 혹은 AP를 복사한 경우이다. XP는 위에서 언급했던 초점의 특징에 모두 부합한다. 그러나 초점이 확정되어 술어 부분이 전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담당하게 되고, 문장 전체가 초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4.5 한국어 ‘극단 초점 구문’과의 비교 분석

먼저 ‘도, 조차, 마저, 까지’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는 이 네 가지 용어의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까지’는 ‘극한’, ‘조차’는 ‘첨가’, ‘마저’는 첨가에 대해 ‘마지막, 추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 더 잘 어울려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까지’, ‘조차’, 마저’는 부정적인 상황의 경우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며, ‘까지’와 ‘마저’는 긍정문인 경우에 잘 쓰이고, ‘조차’는 부정문에 더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하였다.

(108) a. 그 학생은 노래조차 못 불러.

b. 그 학생은 노래마저 못 불러.

c. 그 학생은 노래까지 못 불러.

a, b와 c에서 볼 수 있듯이, ‘조차’, ‘마저’, ‘까지’는 부정문에서 다 쓰일 수 있다.

- (109) a. *추운데 바람조차 부네요.
b. 추운데 바람마저 부네요.
c. 추운데 바람까지 부네요.

‘조차’는 일반적으로 긍정문에 쓰이지 않는다.

‘까지’와 ‘마저’는 부정문과 긍정문에 쓰일 수 있다. ‘까지’는 ‘극한’의 뜻을 나타내므로 극단을 표시하며, ‘마저’는 극단과 중간단계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언어를 분석할 때 교차 언어(cross linguistic)적인 특징을 참고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국가의 언어에서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극단 초점 구문’과 유사한 몇 개의 구문이 있는데, ‘도’는 그 중에 하나이다.

최규련(2001)은 ‘도’를 초점표지라고 제시하였다. 초점표지는 문장의 특정 부분을 초점화시키는 것인데, 그는 ‘도’가 앞의 부분을 초점이 되게 하며 격표지와 화제표지가 생략되어 초점표지와 초점의 긴밀한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 (110) a. 초점사 ‘도’를 지닌 문장들은 ‘도’가 없는 해당 문장들을 포함한다.
b. 초점사 ‘도’는 문장의 초점에 대안집합을 부여한다.
c. 초점사 ‘도’는 잠재적인 대안집합을 그들의 영향권에서 열린 문장을 위한 가능한 값으로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그는 (111a)가 (111b)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111) a. 철수도 차를 샀다.

b. $(\exists y) [/ \lambda x (x \text{가 차를 샀다}) / (y) \& (y = \text{철수}) \& (y \text{가 차를 샀다})$

초점표지 ‘도’는 ‘도’가 없는 문장을 포함하는데, 즉 ‘철수가 차를 샀다’이다. 또한, 이 문맥에서 대안집합은 λ 로 표현되는 술어를 만족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 구조를 얻을 수 있다.

(112) a. 도 ($\lambda x (\alpha), \beta$)

b. $\alpha(\beta)$ (함의 entailment)

c. $(\exists y) [/ \lambda x (\alpha) / (y) \& (y = \beta) \& \alpha(y)]$ (전제)

(112b) ‘철수가 차를 샀다’는 (112a) ‘철수도 차를 샀다’의 함의이고, (112c)는 ‘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를 샀다’의 전제라고 하였다.

‘도’의 전제는 앞에서 설정한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도’처럼 ‘连’은 초점표지이다. ‘극단 초점 구문’은 대안집합을 형성할 수 있다. ‘도’와 다른 것은, ‘도’는 앞의 성분이 초점이 되게 하지만, ‘连’은 ‘连’과 ‘都’사이의 부분이 초점이 되게 한다.

(113) a. 철수조차 모른다.

전제: 철수 이외의 사람이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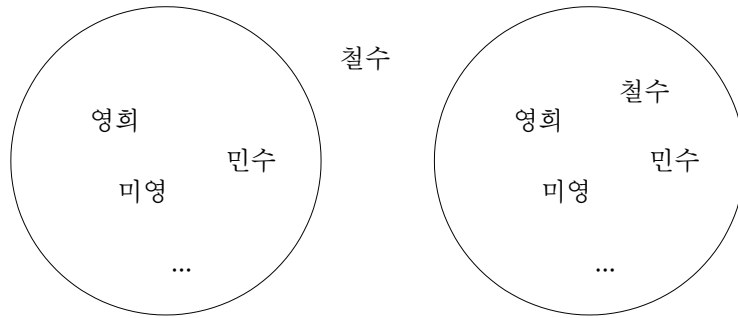
단언: 철수가 모른다.

b. 철수도 모른다.

전제: 어떤 사람이 모른다.

단언: 철수가 모른다.

4.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



(113a)와 (113b)는 다른 전제를 나타낸다. (113a)의 전제에서는 ‘철수’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13b)에서는 ‘철수’가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이다. (113a)와 (113b)의 전제는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3a)의 전제에는 철수는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화자의 전제에서 가능성이 있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수도 모른다는 발화를 함으로써 그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113b)의 전제에서는 철수가 가능성이 있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철수가 모른다는 단언은 전제와 충돌되지 않는다.

5. 결론

한국어의 ‘극단 초점 구문’에 대응되는 현대 중국어 ‘극단 초점 구문’은 네 가지가 있다. ‘都’, ‘也’, ‘连…都’와 ‘连…也’구문은 모두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극단 초점 구문’이다.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학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화제와 초점에 대해 정의하여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언급했던 ‘극단 초점 구문’의 특징에 모순점, 초점과 대조의 구분에 대한 모호성 등이 존재하였다. 또한, 언급된 정보를 구정보로 여기고,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신정보로 여기는 오류가 존재하였다.

본고는 중국어에서는 ‘극단 초점 구문’으로 ‘连…都’구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문이 존재하므로 여러 구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극단 초점 구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분석 결과 다음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连)XP都VP’에서의 XP는 여러 성분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XP로 표시하였는데, ‘극단 초점 구문’의 XP로는 NP와 VP뿐만 아니라 AP가 사용될 수 있다. XP는 성분에 따라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XP가 NP인 경우 문맥이 존재하지 않아도 척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NP와 문맥이 존재해야만 척도를 이해할 수 있는 NP로 나뉘어진다.

부정문에서 XP가 복사되어 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XP가 VP인 경우 이합사가 사용될 때에는 단어의 긴밀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동목구조의 경우에는 VP에서의 목적어는 단일명사>비지시명사>지시명사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데, 지시 명사의 경우 대부분 문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XP가 AP인 경우 ‘没’ 혹은 ‘了’와 쓰일 수 있는 동태적 의미가 강한 AP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都’자문은 강세로 ‘극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也’자문은 문맥을 통해 ‘극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都’와 ‘也’의 기본 의미는 각각 ‘모두’와 ‘같음’으로 하나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척도를 형성하는 ‘극단 초점 구문’으로 쓰일 수 있으나, 두 구문의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都’자문은 강세로 ‘극단’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也’자문은 문맥으로 ‘극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이미 알고 있는 성분이 초점이 될 수 있고, 모르는 성분이 화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고는 구정보 및 신정보의 기준이 아닌 Lambrecht(1994)의 이론에 입각하여 ‘극단 초점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극단 초점 구문’의 전제는 XP 이외의 성분이 ‘都’ 뒤의 성분에 의해 진술되는 내용을 만족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언은 이러한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극단 초점 구문’은 대안집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언이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XP보다 가능성이 더 큰 대안성분이 ‘都’ 뒤의 성분이 진술하는 내용을 만족할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본고의 분석을 통해, XP는 다음과 같은 초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단 초점 구문’의 XP는 전제와 단언을 구별해주는 화용적 성분이며,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XP는 휴지할 수 없고 생략 불가능하며 의문대사의 대답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극단 초점 구문’의 의미는 ‘连’자 혹은 강세로 나타나는 것이다. ‘连’은 초점표지이며,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XP 앞에 부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连’자가 부가된 ‘连…都’구문과 ‘连…也’구문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여섯째, 본고는 ‘극단 초점 구문’에서의 XP를 초점으로 보았으며, NP가 XP일 경우에는 NP가 초점이다. 또한, VP 혹은 AP가 XP로 쓰일 경우에는 VP가 초점일 뿐만 아니라 XP가 술어에 복사되어 다시 한 번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초점으로 확장된다. 위의 분석을 통해, 화자는 XP를 부가함으로써 ‘극단 초점 구문’을 새로운 정보로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1. 논문류

<국문>

- 김기찬(1982), 英語 “even”과 韓國語 ~까지, ~마저의 比較, 인문학총, vol.7.
- 박정구(2015), 信息結構在教學中的運用, 대한중국어학회.
-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 國語學, vol.73.
- 백은희(2001), “連…都/也”구문의 정보구조 분석, 中國學報, vol.49.
- 예선희(2010), 척도초점사 even의 문법화에 대하여 주관화, 상호주관화, 서법성을 중심으로, 현대영어인문학, vol.54.
- 이정민(2011), 보조사 ‘마저’, ‘조차’의 문법화 연구,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006: 274.
- 조은희(2005), 현대중국어 화제초점 표지사 ‘連’에 관한 小考, 中國語學論文集, vol.34.
- _____ (2008), 현대 중국어 ‘連’자문의 부정 초점 연구, 中國語學論文集, vol.51.
- 최규련(2001), 국어 첨가 초점사의 의미 - ‘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vol.8.
- 한정한 & 도은희(2010), ‘조차’, ‘까지’, ‘마저’의 텍스트 의미, 한글, vol.290.

<중문>

- 박정구(2016), 從類型學視角看漢語形容詞謂語句的信息結構, 中國語文, vol.4.
- 郭春貴(1996), 試論“連…都…”和“連…也…”的异同, 第五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
- 高明樂(2002), 試談漢語“都”的定義問題, 語言教學與研究, vol.3.
- 高順全(2009), “都”、“也”、“又”主觀化用法的異同, 淮海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vol.2.
- 喬石豪(2005), 探討“連…都/也…”結構的語法化過程, 河南大學.
- 南曉民(2010), 副詞“都”的語義分析, 西藏大學學報, vol.25.

- 段業輝(1994), 論離合詞,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vol.2.
- 董秀芳(2003), “都”與其他成分的語序及相關問題, “都”與其他成分的語序及相關問題, vol.63.
- 羅暉(2007), 論“連”字句的梯級邏輯, 當代修辭學, vol.1.
- 連蜀(2006), 淺議範圍副詞, 語文學刊, vol.24.
- 盧福波(1999), “也”的構句條件及其語用問題,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vol.4.
- 魯曉琨(1992), 副詞“也”的深層語義分析, 漢語學習, vol.4.
- 廖斯級(1984), 再談關聯詞語“連…也/都…”的功用,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vol.2.
- 劉丹青(2005), 作為典型構式句的非典型“連”字句, 語言教學與研究, vol.4.
- _____(2015), 漢語主語何時不是話題, 國際中國語言學學會第23屆年會暨第1屆韓漢語言學國際學術會議摘要集.
- 劉丹青 & 徐烈炯(1998), 焦點與背景、話題及漢語“連”字句, 中國語文, vol.4.
- 李文浩(2013), “都”的指向識別及相關“都”字句的表達策略, 漢語學報, vol.1.
- 李運燕(1993), 範圍副詞的分類及語義指向, 寧波師院學報 (社會科學版), vol.2.
- 馬真(1983), 關於“都/全”所總括的對象的位置, 漢語學習, vol.1.
- 滿在江(2005), 現代漢語“也”字歧義句的句法研究, 外語研究, vol.6.
- 方梅(1995), 漢語對比焦點的句法表現手段, 中國語文, vol.4.
- 史錫堯(1990), 副詞“都”語義語用綜合考察, 漢語學習, vol.4.
- 徐傑(1985), “都”類副詞的總括對象及其隱現、位序, 漢語學習, vol.1.
- 徐霞(2003), 表“類同疊加”的副詞“也”的語義指向考察, 天中學刊, vol.18.
- 袁毓林(2005a), “都”的語義功能和關聯方向新解, 中國語文, vol.2.
- _____(2005b), “都”的加合性語義功能及其分配性效應, 當代語言學, vol.4.
- _____(2006), 試析“連”字句的信息結構特點, 語言科學, vol.2.
- _____(2007), 論“都”的隱性否定和極項允準功能, 中國語文, vol.4.
- 王芳 & 馮廣藝(2015) 表處置義“連”字句的語義特點、語法功能和語法化途徑, 江

漢學術, vol.2.

王聖博(2008), 試論“V 也/都VP”的構造特征及其“也”、“都”的表達功用, 漢語學習, vol.5.

王玉麗(2008), 周遍性主語與副詞“都/也”的關係, 現代語文:語言研究版, vol.11.

王紅(1999), 副詞“都”的語法意義試析, 漢語學習, vol.6.

熊賽男(2007), 論歧義格式“NP1+連+NP2+都/也+VP”, 晉中學院學報, vol.24.

張蕾 & 李寶倫 & 潘海華(2012), “都”的語義要求和特征, 語言研究, vol.32.

張誼生(2001), 論現代漢語的範圍副詞, 上海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vol.1.

_____(2005), 副詞“都”的語法化與主觀化, 徐州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vol.31.

蔣靜忠 & 潘海華(2013), “都”的語義分合及解釋規則, 中國語文, vol.1.

丁雪歡(1994), “連”字句的逆反性考察, 語文研究, vol.8.

_____(1995), 語言運用中“連”字句肯定式與否定式的選擇, 語文研究, vol.4.

_____(1998), “連”字句肯定式與否定式之間的互轉, 語文研究, vol.3.

曹逢甫(1987), 再論話題和“連… …都/也 結構”, 功能主義與漢語語法, 北京語言學院出版社.

曹秀玲(2005), 再議“連……都/也……”句式, 語文研究, vol.1.

周士宏(2003), 範圍副詞“都”的選擇限制, 中國語文, vol.5.

_____(2009), 信息結構中兩個對比次範疇的辨析. 學術交流, vol.1.

周小兵(1990), 漢語‘連’字句, 中國語文, vol.4.

周利芳(1990), 談“都”的總括對象和語義特征, 語文學刊, vol.3.

_____(1993), “都”表總括與表強調之間的內部聯系, 語文學刊, vol.3.

蔡永強(2002), “連……都/也……”結構的認知考察, 北京語言文化大學 研究生學位論文.

_____(2008), “連……都/也……”結構的信息解碼機制”, 雲南師範大學學報, vol.6.

蔡維天(2015), 談“只”與“連”的形式語義, 從微觀到宏觀——漢語語法的生成視野, 商務印書館.

- 崔永華(1984), “連……也/都……”, 語言教學與研究, vol.4.
- 崔希亮(1990), 試論關聯形式“連…也/都”的多重語言信息, 世界漢語教學, vol.3.
- 沈莉娜 & 趙紅(2009), “連……也/都”框式結構的歧義分析, 語文學刊, vol.8.
- 巴丹(2011), “都”與“也”在相關構式中的異同,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何麗萍(2011), 焦點標記“是”與“連……都/也”句法位置研究, 長春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vol.24.
- 韓玉國(2003), “連”字句中“都”與“也”的語義差別, 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 vol.1.
- 洪波(2001), “連”字句續貂, 語言教學與研究, vol.2.
- Marie-Claude Paris(1981), 漢語普通話中的“連……也/都”, 羅愼儀 譯, 當代語言學, vol.3.
- LaPolla, Randy J.(1995), 語用關係與漢語的詞序, 詹衛東 譯, 潘露莉 校, 語言學論叢第30輯, 商務印書館.

2. 단행본

<국문>

-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 서정수(2013),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허성도(2010),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중문>

- 呂叔湘(2005),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 劉月華(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 陸慶和(2006), 《實用對外漢語教學語法》, 北京大學出版社.
- 趙元任(1996), 《中國話的文法》, 河北教育出版社.
- 朱德熙(2003),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영문>

- Adele E, Goldberg(1995),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손영숙 등 역(2004), 《구문문법》,

한국문화사.)

John I. Saeed(2004), *Semantics*, The Blackwell Publishing Led. (이상철 역, 《최신 의미론》, 한국문화사.)

Li, Charles & Thompson, Sandra A, (2015),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정구 등 역(2015), 《표준중국어문법》, 한울 아카데미.)

Lambrecht, Knud(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고석주 등 역 (2000),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 月印출판사)

Whaley, Lindsay J.(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Sage Publications. (김기혁 역 (2010), 《언어유형론》, 소통.)

3. 공구서 및 인터넷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국립 국어원(<http://www.korean.go.kr/>).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語料庫, <http://ccl.pku.edu.cn/corpus.asp/>

北語漢語語料庫, <http://bcc.blcu.edu.cn/>

媒體語言語料庫, <http://ling.cuc.edu.cn/RawPub/>

【中文摘要】

现代汉语极端焦点句的信息结构

本文分析了现代汉语“极端焦点句”中的“连…都”结构、“连…也”结构、“都”字句和“也”字句，探讨了“极端焦点结构”的句法、语义特征，并在此基础上分析了四种“极端焦点句”的相似点和不同点，最后对“极端焦点句”进行了整体说明。

很多不同种类的成分都可以出现在“极端焦点句”结构“(连)XP都VP”的XP中，如NP，VP，AP等，这些成分表现出不同的特点。当XP位置是NP时，主要有两种情况，一是本身具有明确尺度的NP，另外一种是在有语境的情况下才能找出尺度的NP。当XP位置是VP时，否定句中XP复制作谓语时，句子的合法性随着离合词的紧密度的不同而不同；当VP是动补结构时，句子的合法性会受到宾语的指示性的影响。当XP位置是AP时，AP一般是能与“没”或者“了”共现且动态性较强的AP。

“极端焦点句”的“都”字句和“也”字句不同，“都”字句可以通过重音判断极端性，而“也”字句则需要通过语境判断极端性。“都”和“也”的基本意义中包括一个以上的成分，因此它们都可以用作“极端焦点句”。

以往的研究中把提到过的成分看作旧信息，未提到过的成分看作新信息的观点是有矛盾的。本文认为已知信息也可以是焦点，未知信息也可以作话题。因此，本文没有以激活程度不同的旧信息与新信息为标准，而根据Lambrecht(1994)的理论，分析了“极端焦点句”的信息结构。

“极端焦点句”的预设是XP以外的成分(候选项)满足“都”后成分陈述的内容。断言表示这个预设是错的。“极端焦点句”可能出现候选项，因此断言还能表示附加的语义，即比XP可能性更高的候选项很有可能满足“都”后成分陈述的内容。

本文根据Lambrecht的信息结构理论分析了“极端焦点句”的信息结构。“极端

焦点句”中的XP是区分预设与断言的语用成分，是不可预测的。XP后面不能带提顿词或停顿，XP可以是回答疑问代词的成分。“极端焦点句”的意义是用“连”字或者重音表示的。“连”是焦点标记，它是为了消除句子的歧义而添加到XP前的。

总而言之，本文把“极端焦点句”中的XP看作句子的焦点，XP位置是NP的时候，NP是焦点。XP位置是VP或AP的时候，VP或AP是焦点。由于XP复制到谓语上再次出现，焦点会扩展到整个句子。说话者通过添加XP的方式将“极端焦点句”作为新信息来传达，为了突出XP为焦点而将信息结构化。这种现象不仅在汉语中非常常见，在韩语、英语中也是如此，不同语言中的“极端焦点句”中XP都是充当焦点。

关键词: 极端焦点句, 信息结构, 话题, 焦点, 认知语言学

学 号: 2014-22232